

## ▶ 내신 기출 국어, 비상 박영민-하편 ◀

### 5. 마음과 마음을 잇는 언어의 끈

- (1) 듣기·말하기 방법의 다양성 (18문제)-----1쪽
- (2) 언어 예절을 갖추어 대화하기 (15문제)-----14쪽
- (3) 상황에 따른 문법 요소의 활용 (60문제)-----23쪽

### 6. 세상을 바라보는 예리한 눈

- (1) 매체를 통해 보는 세상 (44문제)-----47쪽
- (2) 마지막 땅 (52문제)-----69쪽
- (3) 책으로 세상 읽기 (22문제)-----97쪽

### 7. 설득이라는 이름의 창과 방패

- (1)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한다 (33문제)-----109쪽
- (2) 내 생각에 귀 기울여 줄래요? (15문제)-----127쪽

### 8. 삶 속에 흐르는 한국 문화의 강

- (1) 청산별곡 (49문제)-----135쪽
- (2) 시조 세 편 (49문제)-----160쪽
- (3) 흥계월전 (49문제)-----179쪽

### 9. 우리 말과 글의 역사 위에서 미래를 보다

- (1) 국어의 어제와 오늘 (56문제)-----209쪽
- (2) 우리말의 담화 관습 다시 보기 (14문제)-----228쪽

◆빠른 전체 정답 -----240쪽

◆해설 -----244쪽

**교재 버전: 2021.06.16**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 “청산별곡” 문법 명칭

갈래	고려 가요	성격	현실 도피적, 애상적, 체념적
운율	3·3·2조, 3음부	소재	청산, 바다
주제	살의 고뇌와 비애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징적 시어를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함.</li> <li>• 시구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함.</li> <li>• 구전되어 오다가 조선 시대에 문자로 기록됨.</li> </ul>		

작자 미상

① 살고 싶어라 - 소망  
 ②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 후회와 아쉬움  
 ③ 살리라 - 의지

화자의 이상향(도피처), 속세와 대비되는 공간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3 3 2 3 3 2 → 3음부, 3·3·2조의 율격, 'a-a-b-a'의 문장 구조 } 운율 형성

**멀위랑 드래랑 먹고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소박한 음식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 1연 - '청산'에 대한 동경

추렴구의 기법  
 • 각 면을 분절함.  
 • 운율을 형성하고 노래의 흥을 돋운.  
 • 각 연마다 반복되어 구조적 통일성과 안정감을 줌.  
 • '리, 오' 음을 사용하여 밝고 경쾌한 느낌을 줌.

추렴구의 기법

- 각 면을 분절함.
- 운율을 형성하고 노래의 흥을 돋운.
- 각 연마다 반복되어 구조적 통일성과 안정감을 줌.
- '리, 오' 음을 사용하여 밝고 경쾌한 느낌을 줌.

**우러라 우러라 새여 자고 니러 우러라 새여.**  
화자가 동병상련을 느끼는 감정 이입의 대상

**넙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로라.**  
보다(비교격 조사) 많은 화자의 비애와 슬픔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 2연 - 살의 비애와 고독

① 날아가던 새(화자의 상실감)  
 ② 걸던 발(유랑민의 슬픔)  
 속세 의미적으로 '청산, 바다'와 대비되는 공간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속세에 대한 미련을 떠올리게 하는 대상

**잉 무든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속세에 대한 미련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 3연 - 현실 세계에 대한 미련

① 유랑민의 정기  
 ② 좌절된 지식인의 병기  
 ③ 실연한 여인의 은장도

**이령공 더령공 호야 나즈란 디내와손더.**  
이러저러 낮은 지내 왔지만 } 상황의 대비를 통한 고독감 부각

**오리도 가리도 업슨 바므란 또 엇디 호리라.**  
물 사람도 갈 사람도 밤 - 고독의 시간 비탄과 절망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 4연 - 절망적인 고독과 비탄

**어디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어디에다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 화자의 비애를 야기하는 매개체

**미리도 괴리도 업시 마자서 우니노라.**  
미워할 이도 사랑할 이도 화자의 고통스러운 삶 - 운명적 체념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 5연 - 살의 운명에 대한 체념

1~4연을 '청산 노래'로, 5~8연을 '바다 노래'로 본다면 5연과 6연의 순서를 바꾸었을 때 사상 전개가 더 자연스러움.

① 살어리 살어리랏다 **바르래 살어리랏다.**  
1연의 '청산'과 대응

**1능 무자기 구조개랑 먹고 바르래 살어리랏다.**  
소박한 음식, 1연의 '멀위랑 드래'와 대응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 6연 - '바다'에 대한 동경

① 우러라 ① 우는구녀(김탄형). ② 울어라(명령형). ③ 노래하라(명령형).

2 넙라와 너보다.

3 잉 무든 장글란 ① 이끼 물은 정기일랑. ② 날이 무딘 병기(兵器)일랑. ③ 이끼 물은 은장도(銀粧刀)일랑.

화자와 주제에 대한 다양한 견해

- 유랑민 - 유랑민의 살의 비애
- 실연한 사람 - 사랑하는 입을 잃은 슬픔
- 좌절된 지식인 - 살의 고뇌와 비애

**어디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어디에다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 화자의 비애를 야기하는 매개체

**미리도 괴리도 업시 마자서 우니노라.**  
미워할 이도 사랑할 이도 화자의 고통스러운 삶 - 운명적 체념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 5연 - 살의 운명에 대한 체념

1~4연을 '청산 노래'로, 5~8연을 '바다 노래'로 본다면 5연과 6연의 순서를 바꾸었을 때 사상 전개가 더 자연스러움.

① 살어리 살어리랏다 **바르래 살어리랏다.**  
1연의 '청산'과 대응

**1능 무자기 구조개랑 먹고 바르래 살어리랏다.**  
소박한 음식, 1연의 '멀위랑 드래'와 대응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 6연 - '바다'에 대한 동경





8-(1) 청산별곡

(2) 후렴구를 찾아 반복하여 소리 내어 읽어 보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말해 보자.

후렴구인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는 울림소리인 'ㄹ, ㅇ' 음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밝고 경쾌한 느낌을 준다.

3. 이 고려 가요를 자신의 관점에서 주체적으로 해석해 보자.

(1) |보기|와 같이 이 고려 가요의 화자가 누구일지 추측해 보고, 타당한 근거를 들어 작품을 해석해 보자.

|보기|

이 고려 가요는 고려 후기의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에서 창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연에서 '가던 새'를 '갈던 밭', '잉 무든 장글란'을 '이끼 묻은 쟁기일랑'이라고 해석하면, 화자는 농사를 짓고 살던 고려의 백성이었으나 난리(亂離) 때문에 삶의 터전인 경작할 밭을 잃고 떠돌아다니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1연의 '청산애 살어리랏다'는 바로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 청산으로 가고 싶다는 화자의 소망이 드러난 시구이다. 따라서 이 고려 가요는 유랑민의 삶의 비애와 고독을 표현한 작품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고려 가요가 불렀던 고려 후기에는 새로이 집권한 무신들의 횡포로, 양심적 지식인들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현실에 좌절하였다. 3연에서 '가던 새'의 '새'를 '벗'이라 해석하면, 화자는 자신과 뜻을 함께하던 벗이 떠나간 것을 안타까워한다고 볼 수 있다. 8연에서 화자는 고뇌와 비탄에 가득 찬 현실을 잊기 위해 술을 마시며 자연에 깃들고자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고려 가요는 무신 정권의 횡포로 속세를 떠나 사는 좌절된 지식인의 염세적 태도를 표현한 작품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다음 민요를 「청산별곡」과 비교하여 감상하고, 두 작품의 내용 및 형식상의 공통점과 전승 과정을 알아보자.

정선의 구명은 무릉도원이 아니냐  
무릉도원은 어데 가고서 산만 층층하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나를 넘겨 주게  
명사십리가 아니라면은 해당화가 왜 피며  
모춘 삼월이 아니라면은 두견새는 왜 우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나를 넘겨 주게  
아우라지 뱃사공아 배 좀 건네주게  
싸릿골 올동백이 다 떨어진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나를 넘겨 주게

-작자 미상, 「정선 아리랑」

(1) 다음 질문에 답하면서 이 민요와 「청산별곡」의 공통점을 정리해 보자.

8-(1) 청산별곡

- 누가 만들고, 누가 불렀는가?  
➔ 주로 민중이 창작하고 향유하며 노래를 불렀다.
- 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 민중의 생활 감정과 의식, 삶의 애환 등을 진솔하게 담았다.
- 작품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 여러 연(聯)으로 이어져 구성되어 있다.
- 각 연의 내용이 작품 전체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가?  
➔ 각 연의 내용은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과 정서가 나열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유기성이 떨어진다.
- 각 연의 후렴구는 작품 전체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  
➔ 연과 연 사이에 붙는 후렴구는 각 연을 나누는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한 편의 노래라는 형식적 동질성을 갖춘다. 또한 특별한 뜻이 없는 후렴구의 반복은 노래의 운율을 형성하고 흥을 돋우는 역할을 한다.

(2) 앞의 활동 (1)을 바탕으로 이 민요와 「청산별곡」의 형식적 특성이 작품의 전승 방식에 미친 영향을 말해 보자.

이 민요와 「청산별곡」은 각 연이 독립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주제의 유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청자가 마음대로 노랫말을 붙여 이어 부르기 쉽다. 즉 노래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순서를 바꾸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아 누구나 창작할 수 있었다. 또한 동일한 구조의 반복과 후렴구는 사람들의 흥을 돋우고 노랫말을 쉽게 기억할 수 있게 한다. 두 작품은 이러한 형식적 특성으로 인해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불리며 이어져 올 수 있었다.

(3) 다음 글을 참고하여 문자가 없던 시대에 불렸던 작품이 어떻게 오늘날까지 전해져 올 수 있었는지 말해 보자.

고려 시대에 우리말로 불렸던 것으로 추정되는 고려 가요는 오늘날 『악학궤범』, 『악장가사』, 『시용향악보』 등의 악서(樂書)를 통해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 가요는 대부분 민간에서 구전되다가 궁중에 유입된 것으로 한글 창제 이후 기록되어 전승된 결과물이다.

문자가 없던 시대의 작품은 세대를 거치면서 오랫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한글 창제 이후 악서에 기록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1 다음 시를 「청산별곡」과 비교하여 감상하고, 두 작품이 공통으로 다루는 ‘자연’을 중심으로 한국 문학의 내용상 특징을 알아보자.

산이 날 에워싸고  
씨나 뿌리며 살아라 한다  
밭이나 갈며 살아라 한다

어느 짧은 산자락에 집을 모아  
아들 낳고 딸을 낳고  
흙담 안팎에 호박 심고  
들짚레처럼 살아라 한다  
쑥대밭처럼 살아라 한다

산이 날 에워싸고  
그믐달처럼 사위어지는 목숨  
그믐달처럼 살아라 한다  
그믐달처럼 살아라 한다

-박목월, 「산이 날 에워싸고」

## 8-(1) 청산별곡

(1) 위 시에서 '산'의 의미를 파악하고, '산'에 대해 화자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말해 보자.

- '산'의 의미 - 순수한 자연의 세계, 속세에서 벗어난 초월적 공간

- 화자의 태도 - 산을 동경하며 자연에 동화되어 순리에 따르는 삶을 살고자 한다.

(2) 위 시와 「청산별곡」을 바탕으로 한국 문학에서 '자연'이 갖는 상징성을 파악해 보자.

현실 세계와 대비되는 안식의 공간, 순수하고 이상적인 공간, 초월적 공간 등을 상징한다.

2 자연을 소재로 하는 한국 문학 작품을 더 찾아보고, 한국 문학에서 자연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지 이야기해 보자.

- 정철, 「관동별곡」(가사) - 자연을 좋은 경치를 감상하며 풍류를 즐길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 김천택, 「강산 조흔 경을~」(평시조) - 자연을 속세와 달리 마음껏 노닐 수 있는 공간으로 여기고 있다.

- 신석정, 「대숲에 서서」(현대시) - 자연을 고단한 삶 속에서 휴식을 얻을 수 있는 공간으로 여기고 있다.

- 법정, 「어느 오두막에서」(현대 수필) - 자연을 인간이 배워야 하는 가치를 지닌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멀위랑 드래랑 먹고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A]  우러라 우러라 새여 자고 니러 우러라 새여.  
 널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로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B]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잉 무든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C]  이링공 더링공 허야 나즈란 디내와손더.  
 오리도 가리도 업슨 바므란 쏘 엇디 호리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D]  어딤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므리도 괴리도 업시 마자셔 우니노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살어리 살어리랏다 바르래 살어리랏다.  
 누므자기 구조개랑 먹고 바르래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가다가 가다가 드로라 예정지 가다가 드로라.  
 사스미 짚대에 올라서 히금(奚琴)을 허거를 드로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E]  가다니 비 브른 도괴 설진 강수를 비조라.  
 조롱곳 누르기 미와 잡스와니 내 엇디 허리고.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 작자미상, 「청산별곡」

(나) 「청산별곡」은 모두 8연으로 짜여져 있는 작품으로 작자와 연대가 미상인 채 《악장가사》에 실려 전해오고 있다. 남녀 간의 사랑과 연정(戀情)을 읊는 노래가 아니고 고달픈 삶의 외로움, 슬픔을 읊고 있는 점이 이 작품의 특색이다.

대체로 고려 후기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삶의 고뇌를 풀기 위해서 산과 바다를 헤매며 기적과 위안을 구하면서도 삶을 집요하게 추구하는 지식인의 술노래라는 견해가 있는 한편, 삶의 터전을 상실한 피지배계층

이 자연을 떠돌면서 부른 노래라는 견해도 있고, 원나라의 제2차 침범을 전후하여 조성의 시책에 따라 산성(山城)과 해도(海島)로 난리를 피하면서 떠돌던 피난민의 노래라는 주장도 있어서 창작 계층과 작품의 성격 등에 관한 정설이 아직은 확고하게 서 있지 않다.

구조적 측면에서는 5연과 6연을 서로 바꾸어 놓으면서 시 전체의 대응이 아주 정연해지고 청산(靑山)의 노래 4연과 바다의 노래 4연이 모두 기·승·전·결의 구성양식을 정확히 띠게 된다. 뿐만 아니라 청산의 노래 첫 연과 바다의 노래 첫 연, 그리고 그 이하의 연들까지도 의미상 대응되어서 훌륭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연수고등학교 (인천)**

1. (가)의 표현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상징적 시어를 사용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심리를 나타내고 있다.
- ③ 후렴구를 통해 구조적 통일성과 안정감을 주고 있다.
- ④ 자연물과 화자를 동일시하여 화자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⑤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연수고등학교 (인천)**

2. (나)를 바탕으로 (가)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를 '유랑민'으로 본다면,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도는 유랑민의 슬픔을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대칭적 구조로 볼 때 1연의 '멀위, 드래,'와 6연의 '누므자기 구조개'를 대응하는 시어로 볼 수 있다.
- ③ 화자를 무신란으로 인해 속세를 떠난 지식인으로 본다면, 3연의 '잉무든 장글란'을 '날이 무딘 병기'로 해석할 수 있다.
- ④ 3연의 '가던 새'를 '갈던 밭'으로, '잉 무든 장글란'을 '이끼 묻은 쟁기'로 해석하면, 화자는 농토를 잃고 떠돌아 다니던 유랑민으로 볼 수 있다.
- ⑤ 3연의 '가던 새'에서 속세에 대한 미련을 드러내는 화자는 7연의 '짚대에 오른 사슴'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다.

**연수고등학교 (인천)**

3. 다음에서 ㉠과 비슷한 의미의 시어를 찾아 그 상징적인 의미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산이 날 에워싸고  
 씨나 뿌리며 살아라 한다 / 밭이나 갈며 살아라 한다

어느 짧은 산자락에 집을 모아  
 아들 낳고 딸을 낳고 / 흙담 안팎에 호박 심고  
 들짚레처럼 살아라 한다 / 쑥대밭처럼 살아라 한다

산이 날 에워싸고  
 그믐달처럼 사위어지는 목숨  
 그믐달처럼 살아라 한다 / 그믐달처럼 살아라 한다  
 - 박목월, 「산이 날 에워싸고」

<조건>

• 아래 예시 형식에 맞추어 문장형으로 서술할 것  
 [예시] ( )은/는 ‘청산’과 비슷한 의미의 시어로  
 ( )을/를 의미한다.

**연수고등학교 (인천)**

4. [A]~[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 삶의 비애감을 동병상련의 대상인 ‘새’에 이입시켜 표현하고 있다.
- ② [B] : 현실에 대한 관심을 끊고 사사로운 욕심을 버린 화자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 ③ [C] : 낮과 밤의 상황적 대비를 통해 화자의 고독감을 강조하고 있다.
- ④ [D] : ‘돌’을 매개로 하여 피할 수 없는 운명에 대한 비애감을 표현하고 있다.
- ⑤ [E] : ‘술’로 삶의 괴로움을 잊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연수고등학교 (인천)**

5. 윗글과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정선의 구명(舊名)은 무릉도원(武陵桃源)이 아니라  
 무릉도원은 어디 가고서 산만 층층하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나를 넘겨 주게

명사십리가 아니라면은 해당화가 왜 피며  
 모춘 삼월이 아니라면은 두견새는 왜 우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나를 넘겨 주게

아우라지 뱃사공아 배 좀 건너 주게  
 싸릿골 울동백이 다 떨어진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나를 넘겨 주게  
 - 작자미상, 「정선아리랑」

- ① 두 작품 모두 여러 연으로 구성된 분연체 형식의 노래이다.
- ② 두 작품 모두 주로 민중이 창작하고 향유하며 부르던 노래이다.
- ③ 두 작품 모두 후렴구가 있어 각 연을 나누며, 운율을 형성하고 흥을 돋우는 역할을 하고, 구조적 통일성과 안정감을 준다.
- ④ (가)와 달리 <보기>는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과 정서가 나열된 형태로 구성되어 유기성이 떨어진다.
- ⑤ (가)는 고려인들의 삶의 애환을 담은 노래이고, <보기>는 특정 지역의 지역적 특성과 지역 사람의 삶의 모습과 정서를 담은 노래이다.

pt005pt (카톡 ID)  
 내용 질문, 오류 신고

㉒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살어리 살어리랏다 ㉑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멀위랑 드래랑 먹고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우러라 우러라 새여 자고 니러 우러라 새여.  
 널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로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㉓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㉔잉 무든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이링공 더링공 허야 나즈란 디내와손더,  
 ㉕오리도 가리도 업슨 바므란 쏘 엇디 호리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어딤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㉖익리도 괴리도 업시 마자셔 우니노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살어리 살어리랏다 바르래 살어리랏다.  
 누므자기 구조개랑 먹고 바르래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가다가 가다가 드로라 예정지 가다가 드로라.  
 ㉗사스미 짚대예 올라서 히금(奚琴)을 혀거를 드로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가다니 비 브른 도괴 ㉘설진 강수를 비조라.  
 조롱곳 누로기 미와 잡스와니 내 엇디 허리잇고.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 작자미상, 「청산별곡」

**작전여자고등학교 (인천)**

6. 위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동일한 시구의 반복으로 형태적 안정감을 주고 있다.
- ② 대조적인 시어를 제시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태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5, 6연의 순서를 바꾸면 '청산'과 '바를'의 노래로 대칭 구조를 이룬다.
- ⑤ 화자의 감정을 대상에 투영하여 비판 의식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작전여자고등학교 (인천)**

7. ㉑ ~ 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㉑은 화자가 청산을 벗어나며 자신의 유교적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소망이 드러난다.
- ② ㉒은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이지만 어떻게든 극복하겠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난다.
- ③ ㉓은 미워할 사람도 나와 함께 괴로워 할 사람도 없이 절망감에 울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난다.
- ④ ㉔은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삶의 태도가 드러난다.
- ⑤ ㉔은 화자가 독한 술을 빚음으로써 고통을 이겨내려는 태도가 드러난다.

**작전여자고등학교 (인천)**

8. 위 시에서 시적 화자에 따른 ㉓, ㉔의 해석으로 옳은 것은?

시적 화자	㉓	㉔
① 실연한 여인	떠나간 임	이끼 묻은 쟁기
② 유랑민	갈던 밭	이끼 묻은 쟁기
③ 유랑민	함께하던 벗	날이 무딘 병기
④ 좌절한 지식인	갈던 밭	날이 무딘 병기
⑤ 좌절한 지식인	함께하던 벗	이끼 묻은 은장도

**작전여자고등학교 (인천)**

9. 위 시와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아무도 그에게 수심(水深)을 일러준 일이 없기에  
흰 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청(靑)무우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公主)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삼월(三月)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 김기림, 「바다와 나비」

- ① 위 시는 <보기>와 달리 감각의 전이를 통해 현실의 고통스러움을 드러낸다.
- ② 위 시와 달리 <보기>는 현실에 대한 미련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위 시와 달리 <보기>는 이상향을 동경하지만 현실에 부딪혀 좌절한다.
- ④ 위 시와 <보기>는 모두 이상향에 대한 두려움이 나타난다.
- ⑤ 위 시와 <보기>는 모두 색채 대비를 통해 공간적 배경을 형상화 한다.

**작전여자고등학교 (인천)**

10. 위 시와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달아 달아 밝은 달아 / 강 ~ 강 ~ 술 ~ 래  
저기 저기 저 달 속에 / 강 ~ 강 ~ 술 ~ 래  
계수나무 백했거니 / 강 ~ 강 ~ 술 ~ 래  
금도끼로 다듬어서 / 강 ~ 강 ~ 술 ~ 래  
초가삼간 집을 지어 / 강 ~ 강 ~ 술 ~ 래  
양친 부모 모셔다가 / 강 ~ 강 ~ 술 ~ 래  
천년 넘고 살어 보세 / 강 ~ 강 ~ 술 ~ 래

달 떠온다 달 떠온다 / 강 ~ 강 ~ 술 ~ 래  
동해 동천 달 떠온다 / 강 ~ 강 ~ 술 ~ 래  
저야 달은 누 달이냐 / 강 ~ 강 ~ 술 ~ 래  
방 호방네 달이로세 / 강 ~ 강 ~ 술 ~ 래  
방호방은 어디 가고 / 강 ~ 강 ~ 술 ~ 래  
저 달 뜬 줄 모르느냐 / 강 ~ 강 ~ 술 ~ 래

- 작자미상, 「강상술래」

- ① 위 시는 <보기>와 달리 'a-a-b-a' 구조를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② 위 시는 <보기>와 달리 4음보의 울격이 뚜렷하며 민간에서 구전되다 궁중에 유입되었다.
- ③ 위 시와 달리 <보기>는 각 연이 독립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주제의 유기성이 떨어진다.
- ④ 위 시와 달리 <보기>는 후렴구를 통해 각 연을 분절하고 사람들의 흥을 돋우고 있다.
- ⑤ 위 시와 <보기>는 후렴구에서 울림소리를 반복하여 사용해서 밝고 경쾌한 느낌을 준다.



# “눈 마주 힌” 문역 정리

㉠ 원천석, 「눈 마주 휘어진 띠를~」

<b>갈래</b>	평시조	<b>성격</b>	의지적, 절의적, 회고적
<b>제지</b>	대나무		
<b>주제</b>	고려 왕조에 대한 (총절)		
<b>특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연물의 속성을 활용하여 화자의 굳은 절개와 의지를 표현함.</li> <li>고도의 상징과 설의법, 의인법을 활용함.</li> </ul>		

<b>초장</b>	눈을 맞아 휘어진 대나무라도 그 절개가 훼손된 것은 아님을 이야기함.
<b>중장</b>	휘어진 대나무의 변함없는 푸르름을 강조함.
<b>종장</b>	추위에도 굴하지 않는 대나무의 절개를 찬양함.

누가 변절을 의미함.

눈 마주 휘어진 띠를 뉘라서 굽다던고  
 시란, 고난 대나무 - 충신의 지조와 절개를 상징함.  
 「구불 절(節)이면 눈 속의 푸르소냐」 : 설의법 - 화자의 지조와 절개를 드러냄.  
 굽힐 절개 푸르겠는가  
 아마도 '세한 고절(歲寒孤節)은 너뿐인가 흥노라  
 원관념 - 대나무(의인법)

㉡ 황진이, 「동지(冬至)스들 기나긴 밤을~」

<b>갈래</b>	평시조	<b>성격</b>	낭만적, 감상적, 애상적
<b>제지</b>	동짓달 (기나긴) 밤		
<b>주제</b>	정든 임을 그리워하는 애뜻한 정		
<b>특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절한 (의태어)의 사용으로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려 표현함.</li> <li>'시간'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사물로 형상화함(관념의 시각화).</li> </ul>		

<b>초장</b>	동짓달 긴 밤의 한가운데를 베어 냄.
<b>중장</b>	베어 낸 밤을 춘풍 이불 아래 넣어 둠.
<b>종장</b>	이불 아래 넣어 둔 밤을 정든 임이 오시는 날에 펼침.

동지(冬至)스들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어 □ - 추상적 시간  
 부정적 시간 - 임이 부재함. 허리의 한가운데  
 춘풍(春風)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너헛다가 ● - 추상적 시간을 구체적 사물로 형상화함.  
 실이나 새끼 등을 동그렇게 포개어 감아 놓은 모양 △ - 우리말의 묘미가 잘 드러난 부분 (의태어 사용)  
 어론 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워구워 퍼리라  
 긍정적 시간 - 임과 함께함. 여러 굵이로 구부러지는 모양

8-(2) 시조 세 편

㉔ 작자 미상, 「두터비 파리를 물고~」

<b>갈래</b>	사설시조	<b>성격</b>	풍자적, 우의적, 희화적, 비판적
<b>제지</b>	두꺼비, 파리, 백송골		
<b>주제</b>	탐관오리의 횡포와 (약육강식)의 세태 풍자		
<b>특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풍자와 해학의 표현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대상을 희화화하여 웃음을 유발함.</li> <li>• 의인화를 통해 지배 계층의 허위와 수탈을 우의적으로 드러냄.</li> <li>• 종장에서 화자를 바꾸어 풍자의 효과를 높임.</li> </ul>		

<b>초장</b>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앉음.
<b>중장</b>	흰 송골매가 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라서 뛰다가 자빠짐.
<b>종장</b>	두꺼비 스스로 변명과 자화자찬을 함.

힘없는 백성, 피지배층  
 「두터비 파리를 물고 두엄 우희 치다라 안자」  
 탐관오리, 무패한 양반, 권력자, 두엄  
 것년산 바라보니 <sup>3</sup>백송골(白松骨)이 떠 잇거늘 가슴이 <sup>4</sup>금즉하여 풀덕 뛰여  
 중앙 관리, 외세, 섬득하여  
 내닷다가 두힘 아래 <sup>5</sup>자빠졌구나 <sup>6</sup>「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두터비의 모습을 희화화함」  
 「4 모쳐라 날낸 5 날식만정 6 에혈질 번 하괘라」  
 「: 화자가 두꺼비로 전환됨. →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 허세를 부리는 모습. 두꺼비의 자화자찬(自畫自讚). 허장성세(虛張聲勢)」

㉔의 표현상 특징과 그 효과

우의적

1. 각 시조의 시적 상황 및 화자의 정서

	시적 상황	화자의 정서
㉑	화자가 추운 겨울에 눈이 쌓여 휘어진 대나무를 바라보고 있음.	눈을 맞아 휘어져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대나무의 모습을 예찬하면서, 자신도 (지조)와 충절을 지키고자 함.
㉒	화자가 임이 부재한 상황에서 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음.	임이 부재한 시간을 잘라 두었다가 임이 오면 이어 붙여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싶을 만큼 임을 간절히 그리워함.
㉓	두꺼비가 힘없는 파리를 괴롭히다가 자기보다 강한 송골매 앞에서 비굴해지는 모습을 보임.	힘없는 존재 위에 군림하다가 자기보다 강한 존재 앞에서는 꼼짝도 못 하면서도 (자화자찬)하며 자기 합리화함.

2. 각 시조의 중심 소재의 의미

㉑	㉒	㉓
대(대나무)	밤	두꺼비, 파리, 백송골
어떤 시련 속에서도 지조를 지키는 (충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짓달 지나긴 밤 - 임과 떨어져 보내는 부정적인 시간</li> <li>• 임이 오신 날 밤 - 임과 함께 보내는 긍정적인 시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꺼비 - 무능한 양반, 탐관오리</li> <li>• 파리 - 나약하고 힘없는 (백성)</li> <li>• 백송골 - 중앙 관리, 외세, 암행어사</li> </ul>

3. 각 시조의 표현상 특징

㉑	온갖 시련과 고난, 유혹 속에서도 지조와 충절을 지키고자 하는 굳은 의지를 눈 속에서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대나무)에 빗대어 표현함.
㉒	‘밤’을 잘라 낸다고 표현함으로써, (추상적) 개념인 시간을 구체적 사물로 형상화하고 있음. 이렇게 잘라낸 시간을 임이 오신 짧은 밤에 펼쳐서 임과 더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고자 하는 바람을 드러냄으로써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참신하고 생생하게 표현함.
㉓	‘파리’, ‘두꺼비’, ‘백송골’의 세 계층을 통해 권력 구조의 비리를 (우화적)으로 나타냄. 즉 지배 계층의 허위와 수탈을 우의적으로 드러내어 효과적으로 풍자함.

# 근대시 학습 활동

1 시조 ㉑~㉓를 감상하고, 각 시조의 중심 소재를 바탕으로 시적 상황을 파악해 보자.

	중심 소재	시적 상황
㉑	대(대나무)	화자는 추운 겨울에 눈 속에서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대나무를 바라보며 자신도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신념을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
㉒	밤	화자는 임이 부재한 긴 밤을 잘라 두었다가 임이 오는 날 밤에 이어 붙이겠다고 하며 임을 그리워하고 있음.
㉓	두꺼비, 파리, 백송골	두꺼비가 힘없는 파리를 물고 으스대다가 자신보다 강한 백송골을 보고 놀라 도망치다가 넘어짐.

2 시조 ㉑~㉓의 특징을 다음 기준에 따라 정리해 보고, 시조의 내용과 형식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자.

	㉑ 고려 말, 조선 전기	㉒ 조선 중기	㉓ 조선 후기
작가의 신분	사대부	기녀	알 수 없음.
내용상 특징	지조와 충절을 강조함.	인간의 정서를 진솔하게 드러냄.	당시 사회 현실을 반영하며, 부조리한 세태를 풍자하여 비판함.
형식상 특징	3장 6구 45자 내외의 형식을 취하며, 각 장은 4음보를 유지함.	3장 6구 45자 내외의 형식을 취하며, 각 장은 4음보를 유지함.	3장 6구에서 변형되어 중장이 길어지고, 4음보의 정형성이 파괴되어 시조의 장형화를 이룸.

4 다음 향가를 감상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서정 문학의 연속성을 알아보자.

생사(生死) 길은  
 예 있으매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아아, 미타찰(彌陀刹)에서 만날 나  
 도(道) 닦아 기다리겠노라.

-월명사, 「제망매가」

(1) |보기|를 참고하여 위 향가의 내용을 정리해 보고, 낙구의 감탄사를 찾아 그 역할을 말해 보자.

**|보기|**  
 10구체 향가는 시상 전개에 따라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 제1장(1~4구)에서 시상을 일으키고, 제2장(5~8구)에서 이를 이어받아 시상을 전개한 후, 제3장(9~10구)에서 시상을 마무리하는 3단 구성을 취한다. 제3장 낙구(落句)의 첫머리에는 감탄사가 붙는 것이 특징이다.

1~4구	5~8구	9~10구	낙구의 감탄사
누이의 죽음을 괴로워함.	누이에 대한 안타 까움과 삶의 무상 함에 대해 고뇌함.	이승에서의 슬픔을 종교적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화함.	‘아아’ - 누이의 죽음에 대한 화 자의 슬픔과 삶의 고뇌가 종교적 믿음을 통해 극복되는 부분으로, 시상 전환의 역할을 함.

(2) 앞서 살펴본 시조를 고려할 때, 시조가 10구체 향가의 형식적 전통을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는지 토의해 보자.

10구체 향가가 시상 전개에 따라 ‘4구 - 4구 - 2구’의 3단으로 구성되듯이 시조도 ‘초장 - 중장 - 종장’의 3장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시상을 집약하거나 전환하여 서정적인 완결성을 갖추게 하는 향가의 낙구 첫머리에 나타나는 감탄사의 기능이 시조 종장의 첫 음보와 유사하다. 따라서 10구체 향가의 구성 방식이나 낙구의 형식이 시조에 계승되었다고 할 수 있다.

1 다음 판소리계 소설을 감상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문학의 표현상 특징을 알아보자.

놀부 심사를 볼작시면 초상난 데 춤추기, 불붙는 데 부채질하기, 해산한 데 개 잡기, 장에 가면 억매(抑賣) 흥정하기, 집에서 몹쓸 노릇하기, 우는 아해 불기 치기, 갓난 아해 똥 먹이기, 무죄한 놈 뺨치기, 빗값에 계집 뺨기, 늙은 영감 덜미 잡기, 아해 뺨 계집 배 차기, 우물 밑에 똥 누기, 오려논에 물 터놓기, 잣힌 밥에 돌 퍼붓기, 패는 곡식 이삭 자르기, 논두렁에 구멍 뚫기, 호박에 말뚝 박기, 굽사등이 얹어 놓고 발꿈치로 탕탕 치기, 심사가 모과나무의 아들이라. 이놈의 심술은 이러하되, 집은 부자라 호의호식(好衣好食)하는 구나. 흥부는 집도 없이 집을 지으려고 집 재목을 내려 갈 양이면 만첩청산(萬疊靑山) 들어가서 소부등(小不等) 대부등(大不等)을 와들령 통탕 버혀다가 안방, 대청, 행랑, 몸채, 내외 분합(分閤) 물림퇴에 살미 살창 가로달이 입 구(口) 자로 지은 것이 아니라, 이놈은 집 재목을 내려 하고 수수밭 틈으로 들어가서 수수깡 한 뭇을 버혀다가 안방, 대청, 행랑, 몸채 두루 짚어 말집을 짝 짓고 돌아보니, 수숫대 반 뭇이 그저 남았구나. 방 안이 넓든지 말든지 양주(兩主) 드러누워 기지개 켜면 발은 마당으로 가고, 대고리는 뒤꼍으로 맹자 아래 대문하고 엉덩이는 울타리 밖으로 나가니, 동리 사람이 출입하다가 “이 엉덩이 불러들이소.” 하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 작자 미상, 「흥부전」

(1) 위 소설에서 웃음을 유발하는 부분을 찾아 그 이유를 써 보자.

웃음을 유발하는 부분	웃음을 유발하는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놀부 심사를 볼작시면~심사가 모과나무의 아들이라.’</li> <li>· ‘흥부는 집도 없이 ~ 수숫대 반 뭇이 그저 남았구나.’</li> <li>· ‘방 안이 넓든지 말든지 ~ 소리가 들리는 구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놀부의 심술로 벌어지는 상황을 과장하여 보여 줌으로써 웃음을 자아냄.</li> <li>· 가난하여 제대로 된 집을 짓지 못하는 흥부의 처지를 과장하여 표현함으로써 웃음을 자아냄.</li> <li>· 흥부의 집이 비좁은 것을 밭과 머리, 엉덩이가 집 밖으로 나간다는 과장하여 표현함으로써 웃음을 자아냄.</li> </ul>

(2) |보기|를 참고하여 이 소설과 시조 ㉠의 표현상 특징을 비교해 보자.

**[보기]**  
한국 문학의 미적 범주에서 눈에 띄는 전통으로 풍자와 해학을 들 수 있다. 풍자와 해학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과장하거나 왜곡하고 비꼬으로써 웃음을 유발한다. 그러나 풍자가 대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대상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표현 방식인 반면에, 해학은 연민과 애정을 가지고 대상을 감싸 안음으로써 대상에게 동정심을 유발하는 표현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풍자와 해학은 모두 대상을 희화화함으로써 익살 섞인 웃음을 불러일으키는 표현 방식이지만, 대상에 대한 인식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풍자와 해학의 표현 방식은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기보다는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건강한 삶의 의지를 드러냄으로써 골계미(滑稽美)를 나타내며, 조선 후기의 사설시조나 판소리, 민요나 탈춤 등에서 잘 나타난다.

이 소설은 놀부의 탐욕과 심술궂은 면모를 장황하게 서술함으로써 부정적 인물을 희화화하여 비판하고, 가난한 흥부의 처지를 과장되게 묘사하여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시조 다 는 허세를 부리던 두꺼비가 놀라 자빠지는 모습을 통해 대상을 해학적으로 풍자하고 있다. 즉, 두 작품 모두 심각하거나 비극적인 상황을 서민 특유의 건강한 웃음으로 희화화한 표현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눈 마즈 휘여진 디를 뉘라서 굽다턴고  
 구불 절(節)이면 눈 속에 프를소나  
 아마도 세한 고절(歲寒孤節)은 너써인가 흐노라.  
 - 원천석

(나) 동지(冬至)스들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어  
 춘풍(春風)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른 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뵤구뵤 퍼리라  
 - 황진이

(다) 두터비 파리를 물고 두힘 우희 치다라 안자  
 것년산 바라보니 백송골(白松骨)이 떠 잇거늘 가슴이  
 금죽하여 풀덕 뛰여 내닷다가 두힘 아래 잣바지거고  
 모쳐라 날낸 넝식만정 에헬질 번 하괘라.  
 - 작자미상

**배곧고등학교 (경기)**

1. (가) ~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역동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생동감을 살리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자연물의 속성을 활용하여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의성어를 사용하여 우리말의 묘미를 살리고 있다.
- ④ (나)는 (다)와 달리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⑤ (나)와 (다) 모두 설의적 표현으로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배곧고등학교 (경기)**

2. (나)의 화자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가 '밤'의 '한 허리'를 베어 내겠다고 한 것은 임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어.
- ② 화자가 정성껏 만들고 있는 '춘풍(春風) 니불'은 임을 향한 화자의 애뜻하고 따뜻한 애정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어.

- ③ 화자가 '밤'을 '서리서리' 넣어 두려고 하는 것은 시간이 빨리 지나기 전에 서두르자는 의미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 ④ 화자는 '어른 님 오신 날 밤'이 없을 것임을 예감하고 이별 상황에 순응하고 이를 체념하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어.
- ⑤ 화자가 '밤'을 '구뵤구뵤' 퍼겠다고 하는 것에서 임의 부재 상황에 대한 화자의 깊은 한숨이 담겨 있음을 느낄 수 있어.

**배곧고등학교 (경기)**

3. (다)의 시상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의 변화를 통해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② 화자의 시선이 내면에서 외부 세계로 이동하고 있다.
- ③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④ 화자의 내면이 계절이 변함에 따라 함께 변하고 있다.
- ⑤ 화자의 시선이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

**배곧고등학교 (경기)**

4. <보기>를 읽고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한국 문학의 미적 범주에서 눈에 띄는 전통으로 풍자와 해학을 들 수 있다. 풍자와 해학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과장하거나 왜곡하고 비꼬으로써 웃음을 유발한다. 그러나 풍자가 대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대상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표현 방식인 반면에, 해학은 연민과 애정을 가지고 대상을 감싸 안음으로써 대상에게 동정심을 유발하는 표현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풍자와 해학은 모두 대상을 희화화함으로써 익살 섞인 웃음을 불러일으키는 표현 방식이지만, 대상에 대한 인식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풍자와 해학의 표현 방식은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기보다는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건강한 삶의 의지를 드러낸다.

- ① '두터비'의 외모를 과장함으로써 인물을 희화화하고 있군.
- ② '두터비가 물고 있는 파리'에 대한 연민을 불러일으켜 해학의 묘미를 드러내고 있군.
- ③ '백송골, 두터비, 파리'의 관계를 통해 부정적인 상황을 풍자하려는 의도가 잘 드러나 있군.
- ④ '백송골이 떠 있는 모습'을 통해 '백송골'이 날카롭게 비판하는 풍자의 대상임을 드러내고 있군.
- ⑤ '두터비가 예헐지지 않은 상황'을 통해 주어진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건강한 삶의 의지를 드러내려 하였군.

**배곧고등학교 (경기)**

5. <보기>의 10구체 향가가 (가) ~ (다)와 같은 시조에 계승된 방식을 형식적 측면에서 두 가지 서술하시오.

<보기>

생사(生死) 길은  
 예 있으면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아아, 미타찰(彌陀刹)에서 만날 나  
 도(道) 닦아 기다리겠노라.

- 월명사, 「제망매가」

**배곧고등학교 (경기)**

6. (나)를 바탕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산이 날 에워싸고  
 씨나 뿌리며 살아라 한다  
 밭이나 갈며 살아라 한다

어느 짧은 산자락에 집을 모아  
 아들 낳고 딸을 낳고  
 흙담 안팎에 호박 심고  
 들짚레처럼 살아라 한다  
 쑥대밭처럼 살아라 한다

산이 날 에워싸고  
 그믐달처럼 사위어지는 목숨  
 그믐달처럼 살아라 한다  
 그믐달처럼 살아라 한다

- 박목월, 「산이 날 에워싸고」

(나)

- ㉠ 비유적 표현을 사용할 것.
- ㉡ 대상에 인격을 부여해 표현할 것.
- ㉢ 대구법을 사용하여 운율감을 살릴 것.
- ㉣ 화자의 정서를 점층적으로 표현할 것.
- ㉤ '죽음'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낼 것.

- ① ㉠ : 화자가 자연에 동화된 모습을 '들짚레, 쑥대밭'에 빗댄으로써 실현되었군.
- ② ㉡ : 화자의 내면적 소망을 '산의 권고' 형식으로 표현함으로써 실현되었군.
- ③ ㉢ : 각 연 끝부분의 동일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표현함으로써 실현되었군.
- ④ ㉣ : 시상이 전개될수록 화자가 자연에 동화되는 모습을 강조함으로써 실현되었군.
- ⑤ ㉤ : '그믐달처럼 사위어지는 목숨'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함으로써 실현되었군.

pt005pt (카톡 ID)  
 내용 질문, 오류 신고

**연수고등학교 (인천)**

7. (다)와 <보기>가 한국문학의 연속성을 보여준다고 할 때, ㉠와 ㉡에 들어갈 말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보기>

놀부 심사를 불작시면 초상난 데 춤추기, 불붙는 데 부채질하기, 해산한 데 개 잡기, 장에 가면 역매 흥정하기, 집에서 몹쓸 노릇하기, 우는 아해 볼기 치기, 갓난 아해 똥 먹이기, 무죄한 놈 뺨치기, 빗값에 계집 뺨기, 늙은 영감 덜미 잡기, 아해 뺨 계집 배 차기, 우물 밑에 똥 누기, 오려 눈에 물 터놓기, 잣힌 밥에 돌 퍼붓기, 패는 곡식 이삭 자르기, 논두렁에 구멍 뚫기, 호박에 말뚝 박기, 곱사등이 엮어 놓고 발꿈치로 탕탕 치기, 심사가 모과나무의 아들이라. 이놈 심술은 이러하되, 집은 부자라 호의 호식(好衣好食)하는구나.

- 작자 미상, '흥부전'

	(마)	<보기>
갈래	사설시조	판소리계 소설
대상의 모습	㉠	심술궂은 놀부의 모습
한국 문학의 특징		㉡

<조건>

- ㉠은 화자가 강조하고 있는 대상의 모습을 적을 것.
- ㉡은 두 작품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한국문학의 특징을 서술할 것.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눈 마즈 휘여진 디를 뒤라셔 굽다턴고  
구불 절(節)이면 눈 속에 프를소냐  
아마도 세한 고절(歲寒孤節)은 너써인가 흐노라  
- 원천석

(나) 동지(冬至)스들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어  
춘풍(春風)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론 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뵤구뵤 퍼리라  
- 황진이

(다) ㉠두터비 ㉡파리를 물고 두힘 우희 치다라 안자  
것년산 바라보니 ㉢백송골(白松骨)이 떠 잇거늘 가슴이  
금죽하여 풀덕 뛰여 내닷다가 ㉣두힘 아래 잣바지거고  
㉤모쳐라 날넌 널식만정 에헨질 번 하괘라  
- 작자미상

(라) 생사(生死) 길은  
에 있으며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아아, 미타찰(彌陀刹)에서 만날 나  
도(道) 닦아 기다리겠노라.  
- 월명사, 「제망매가」

**연수고등학교 (인천)**

8.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자연물의 속성에 견주어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나)에는 상대적 의미를 지닌 시구가 짝을 이루고 있다.
- ③ (다)는 대화 형식을 활용하여 해학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④ (가), (나)에는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 있다.
- ⑤ (가), (다)는 의인화를 통해 표현을 극대화하고 있다.



# “중년영웅” 필력 명리

<b>갈래</b>	군담 소설, 여성 영웅 소설	<b>성격</b>	전기적, 우연적, 영웅적, 일대기적
<b>배경</b>	• 공간 - 중국 명나라 • 시간 - 성화 연간(15세기 후반)		
<b>제지</b>	홍계월의 영웅적 활약		
<b>주제</b>	홍계월의 영웅적인 행적과 활약,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한 비판		
<b>특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인공의 일대기적 구성 방식을 취함.</li> <li>• 신분을 감추기 위한 남장 모티프가 사용됨.</li> <li>•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한 능력을 가진 존재로 그려짐.</li> <li>• 여성의 (봉건적) 역할을 거부하는 근대적 가치관이 드러남.</li> </ul>		

<b>발단</b>	이부 시랑 홍무의 딸로 태어난 계월은 장사랑의 반란으로 다섯 살 되던 해에 부모와 헤어짐.
<b>전기</b>	여공의 도움으로 구조되어 그의 아들 보국과 함께 성장한 후, 전쟁에 나가 공을 세우고 헤어졌던 부모와도 재회함.
<b>위기</b>	남장 사실이 밝혀지나 천자에게 용서를 받고 보국과 혼인한 후 갈등을 겪으며 규중에서 살아감.
<b>결정</b>	오왕과 초왕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전쟁에 출정하여 보국과 (천자)의 목숨을 구하고, 원수인 맹길을 죽임.
<b>결말</b>	국가의 위기를 구한 계월은 대사마 대장군의 작위를 받고 보국은 승상이 되는데, 갈등을 해소한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삶.

## 1. 주요 인물의 특성

<b>계월</b>	남편인 보국보다 모든 면에서 우월한 능력을 갖춘 여성으로, 비범한 능력을 지닌 영웅의 모습을 보여 줌. 남장을 통해 당대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한계를 탈피하고 남성과 대등하게 경쟁하고 활약함. 조선 후기 당시 여성의 사회적 자아실현에 대한 열망을 대변하는 역할을 함.
<b>보국</b>	계월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보장된 남성의 권위를 내세우는 가부장적 사고를 지닌 인물임. 계월이 자신의 첩 영춘을 죽인 일로 갈등하나, 결국 자신의 잘못과 계월의 뛰어난 능력을 인정함.
<b>여공</b>	부모를 잃은 계월을 거둬들여 위기 상황에서 영웅을 돕는 (조력자)의 면모를 보임. 계월이 자신의 아들인 보국보다 뛰어난 능력을 지녔음을 인정하고 아내가 남편의 우위에 있을 수 있다는 사고를 지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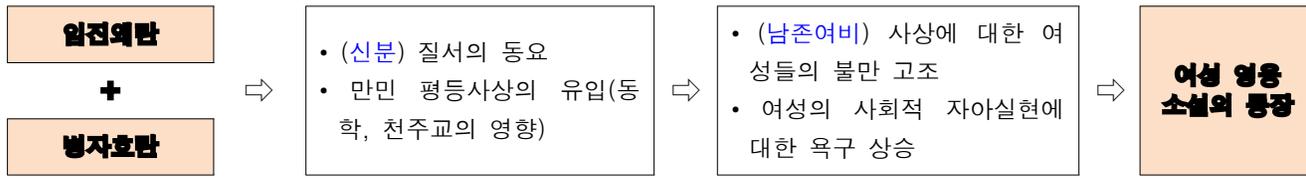
## 2. 당대 사회 상황과 관련된 ‘남장’ 모티프의 의미

<b>남장을 통해 과거에 급제하고 원수로 활약한 계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장이란 단순히 남자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자신의 성을 감추면서 변장을 통해 남성으로 행세하는 것임. → 남장은 여성이 남성 중심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도구임.</li> <li>• 남장을 통해서만 여성의 지위와 한계를 탈피하고 남성과 대등하게 경쟁하며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음. → 남장을 벗는 순간 여성의 지위로 돌아와 기존 사회 질서와 갈등함.</li> </ul>	⇒
	<p><b>당대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받았던 억압과 차별이 반영되어 소설에 (남장) 모티프가 나타남.</b></p>

## 3. 여성 영웅 소설로서의 의의

계월이 남편인 보국과의 갈등을 능력의 우월함으로 해결하는 것	⇒	남성의 (권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기존 여성 영웅 소설의 한계를 과감히 탈피함.
계월이 국가에 충성하는 신하이자 (국난)을/를 극복하는 영웅으로 사회적 자아를 실현하는 것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도 삶의 주체로서 사회적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존재임을 보여줌.</li> <li>• 여성의 사회 진출을 부정적으로 인식한 당대 남성 중심의 사회적 제도와 가부장적 질서 체계에 대한 비판을 담음.</li> </ul>

4. 여성 영웅 소설의 등장 배경



**모티브 학습 활동**

1 「흥계월전」을 감상하고, 영웅의 일대기 구성에 따라 '계월'의 일생을 정리해 보자.

영웅의 일대기 구성	'계월'의 일생
고귀한 혈통에서 태어남.	이부 시랑 '홍무'의 딸로 태어남.
비정상적인 출생 과정을 거침.	자녀가 없던 양 씨가 선녀가 나오는 꿈을 꾸고 계월을 낳음.
비범한 능력을 지님.	어려서부터 대단히 총명함.
어릴 적에 위기를 겪음.	장사랑의 반란으로 부모와 헤어지고, 죽을 위기에 처함.
조력자의 도움을 받음.	여공을 만나 목숨을 건지고 보국과 함께 양육됨.
성장하여 다시 위기를 겪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란이 잦음.</li> <li>• 여자임이 탄로 남.</li> <li>• 첩 영춘을 죽인 일로 남편인 보국과 갈등함.</li> </ul>
위기를 극복하고 행복한 결말을 맞이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자가 남장을 했던 계월을 용서하고 벼슬을 그대로 둬.</li> <li>• 계월이 출정하여 적을 물리침.</li> <li>• 보국이 계월의 우위를 인정함으로써 갈등이 해소됨.</li> </ul>

8-(3) 흥계월전

2 이 소설에 반영된 당대의 사회상을 알아보자.

(1) '계월'의 능력을 바라보는 등장인물들의 태도를 정리해 보자.

'보국'
아내인 '계월'의 부하가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만, '계월'이 위기에서 구해 준 뒤로는 '계월'의 능력을 인정함.

'여공'
계월이 자신의 아들인 보국보다 뛰어난 능력을 지녔음을 인정하며, 아내가 남편의 우위에 있을 수 있다고 봄.

'천자'와 조정의 신하들
계월이 여자임을 알고서도 벼슬을 유지해 주고, 국난을 당했을 때 높은 벼슬을 주며 계월을 기용함.

(2) |보기|를 참고하여 당대의 사회상이 이 소설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살펴보자.

|보기|

조선 후기의 사회·문화적 변화로 눈에 띄는 점은 국문 소설이 성행하며 독자층이 사대부가 여성을 비롯하여 평민층으로까지 확대되었다는 점과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에게 굴종을 강요당하던 여성의 의식이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여성 주인공의 영웅적 활약에 초점을 맞춘 여성 영웅 소설은 이러한 흐름에서 성행하였다. 물론 충군(忠君) 사상이나 남존여비(男尊女卑)와 같은 당대 유교적 이념의 벽은 여전히 견고했다. 하지만 소설에서 남성보다 뛰어난 여성 주인공을 내세워 기존의 가부장적 질서를 비판했다는 점을 통해 조선 후기 여성의 의식이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계월이 나라와 천자에 충성을 다하는 장면을 통해 충군 사상과 같은 유교적 이념을 엿볼 수 있어.	계월이 보국보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장면을 통해 새로운 독자층인 여성의 의식이 성장했음을 엿볼 수 있어.
---	--

3 다음 글은 「사씨남정기」의 일부로, 남편을 어떻게 섬기려 하느냐는 시아버지의 질문에 '사 씨'가 대답한 내용이다. 이를 통해 '사 씨'와 '계월'의 가치관을 비교해 보자.

“고어(古語)에 이르기를 ‘부부의 도는 오륜(五倫)을 고루 겸한다.’라고 하였습니 다. 아비에게는 간언하는 아들이 있고, 임금에게는 간쟁하는 신하가 있습니다. 형제는 서로 정도(正道)로 권면하고, 봉우는 서로 선행을 권유합니다. 부부의 경우라 하여 어찌 유독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자고로 장부가 부인의 말을 들으면 이익은 적고 폐해가 많았습니다. 암탉이 새벽에 울고 철부(哲婦)가 나라를 기울게 하는 것은 경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김만중, 「사씨남정기」

사 씨는 유교적 가치를 중시하고 가부장적 가치관을 옹호하는 인물로, 여성을 수동적인 존재로 인식하여 여성이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반면에 계월은 가부장적 가치관과 거리가 먼 인물로, 성별 구분 없이 능력에 따라 인정받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

## 흥계월전

1. ‘천자’가 ‘평국’을 불러들이기를 망설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평국이 과거 남장을 했을 때는 벼슬을 받아 관직에 있었으나, 여자임이 밝혀진 지금은 보국의 아내로서 규중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규중의 여성이 사회생활을 하는 것을 꺼렸고 실제로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천자가 평국을 쉽사리 부르지 못하는 것이다.

2. 적장이 달려들고 적병이 사방을 에워싸서 자신이 죽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보국’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한 이유는 무엇인가?

3. ‘보국’이 ‘평국’ 보기를 부끄러워한 이유는 무엇일까?

가정 내의 가부장적 권위를 내세워 평국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우위에 있는 그의 명령에 불만을 가졌었는데, 평국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구했기 때문이다.

4. ‘평국’은 ‘천자’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마음이 혼란스러워서 밖에 나가 천기를 살펴보던 중 천자의 운명을 나타내는 별이 심상치 않음을 확인하고 천자에게 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5. ‘여공’이 수챗구멍에 몸을 감추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도적이 갑자기 쳐들어와 대궐에 불을 지르고 노략하는 난리 통에 미처 피난을 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흥계월은 장사랑의 난에 부모와 헤어지지만 여공(呂公)에 의해 구출된다. 남장을 하고 이름을 평국으로 바꾼 계월은 여공의 아들 보국과 함께 무예를 배워 과거에 급제한다. 서달의 반란이 일어나자 평국은 원수가 되어 보국을 중군(中軍)으로 거느리고 출전한다.

이적에 중군장(中軍將) 보국이 아뢰되,  
 “명일은 소장이 나가 악대의 머리를 베혀 휘하에 올리리다.”  
 원수 만류하여 왈,  
 “악대는 범상치 아니 한 자오니 중군은 물러 있으라.”  
 하니 종시 듣지 아니 하고 간청하거늘 원수 왈,  
 “중군이 자청하여 공을 세우고자 하거니와 만일 여의치 못하면 군법을 시행하리라.”  
 하니 중군이 왈,  
 “그리하옵소서.”  
 원수 왈,  
 “군중(軍中)은 사정(私情)이 없나니 군률(軍律)로 다짐을 두라.”  
 하니 군중이 투구를 벗고 다짐을 써 올리니라.  
 이튿날 아침에 보국이 갑주를 갖추고 용총마 위에 올라 원수는 친히 복채를 들고,  
 “만일 위태하거든 쟁을 쳐 퇴군하옵소서.”  
 하고 진문 밖에 나가며 대호 왈,  
 “어제날은 우리 원수 너희를 용서하고 그저 돌아왔으나 금일은 나로 하여금 너희를 베히라 하시매 빨리 나와 내 칼을 받으라.”  
 하니 문길이 영을 듣고 정창출마(挺槍出馬)하여 합전하더니 수합이 못하여 보국의 칼이 빛나며 문길이 머리 말 아래에 내려지는지라 창 끝에 피어 들고 대호 왈,  
 “적장은 애매한 장수만 죽이지 말고 빨리 나와 항복하라.”  
 하니 총서장군 총관이 문길이 죽음을 보고 급히 내달아 싸울새, 삼십여 합에 이르러 총관이 거짓 패하여 본진으로 달아나거늘, 보국이 승세하여 따르더니, 적진이 일시에 고함을 지르고 둘러싸니, 보국이 천여 적에 싸였는지라 하릴없이 죽게 되었거늘, 수기(手旗)를 높이 들고 원수를 향하여 탄식하더니 이때 원수 중군의 급함을 보고 복채를 던지고 준총마를 급히 몰아 크게 웨여 왈,  
 “적장은 나의 중군을 해치 말라.”  
 하고 수다한 중군(衆軍)에 좌총우돌하며 고함을 지르고 헤쳐 들어가니 적진 장졸이 물결 헤여지듯 하는지라 원수 보국을 옆에 세고 적장 오십 여 명을 한 칼로 베히고 만군 중에 횡행하며 서달이 악대를 돌아보아 왈,

“평국이 하나인줄 알았더니, 금일 보건대 수십도 넘는다 하노라.”  
 악대 대왈,  
 “대왕은 근심치 마옵소서.”  
 서달이 왈,  
 “뉘 능히 당하리오. 죽은 수를 이로 측량치 못하리로다.”  
 이적에 원수 본진으로 돌아와서 장대에 높이 앉아 보국을 잡아들이라 호령이 추상갈거늘, 무사 넋을 잃고 중군을 잡아 장대 앞에 끌리니 원수 대질(大叱)왈,  
 “중군은 들어라. 내 만류하되, 자원하여 다짐두고 출전하더니 적장의 꾀에 빠져 대국에 수치함을 끼치니, 내 구(救)치 아니 하라다가 더러운 도적의 손에 아니 죽이고 법으로 내가 죽여 제장을 호척코자 하여 구함이니 죽기를 설워 말라.”  
 하며 무사를 호령하여 원문 밖에 내여 베히라 하니 제장(諸將)이 일시에 복지(伏地)하여 왈,  
 ㉔“중군의 죄는 군법시행이 마땅하오나 용력을 다하여 적장 삼십여원을 버히고 의기양양하여 적진을 경히 여기다가 패를 보았사오니 한번 승패는 일시상사(一時常事)라, 복원(伏願) 대원수는 용서하옵소서.”  
 하며, 일시에 고두사죄(叩頭謝罪)하니 원수 이윽히 생각하다가 속으로 웃고 왈,  
 “그대를 베혀 제장을 본받기 하자 하였더니 제장의 낮을 보아 용서하거니와 차후는 그리 말라.”  
 하며 우시니 보국이 백배사례하고 물러나니라.  
 \*정창출마(挺槍出馬) : 창을 빼들고 말을 달려 나가다.  
 - 작자 미상, 「흥계월전」

**서현고등학교 (경기)**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주인공의 비범한 면모가 드러나 있다.
- ② 공간적 배경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 ③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 ④ 대화와 행동을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 ⑤ 잦은 장면 전환을 통해 긴박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서현고등학교 (경기)**

**2.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원수는 보국을 위기 상황에서 구하고 돌아왔지만 군법에 따라 그를 죽이라고 명령한다.
- ② 적에게 수치를 당하고 돌아온 보국은 원수에게 사죄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만을 갖는다.
- ③ 보국은 적진에 들어가 천여 적에 휩싸였지만 원수가 도와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맞선다.
- ④ 원수는 중군장이 악대와 싸우겠다는 것에 대해 처음에는 반대하였지만 악대와 맞설 다른 장수가 없어 허락한다.
- ⑤ 총관은 보국이 문길을 죽이는 것을 보고 급히 내달아 싸웠지만 자신도 보국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본진으로 달아난다.

**서현고등학교 (경기)**

**3. ㉔에 사용된 말하기 방식과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교실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 행동은 한두 번은 용서할 수 있지만 그런 행동을 반복해서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
- ② 어머니, 오늘은 따뜻하게 입고 나가세요. 어제보다 날씨가 풀렸다고는 하지만 한겨울이고 어머니께서는 지금 몸살 기운도 있으시니 조심하셔야 할 것만 같아요.
- ③ 여행을 처음 계획할 때에는 외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국내에도 좋은 여행지가 많으니 다른 사람들의 반대가 있더라도 국내 여행을 가서 국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
- ④ 도시에 여유 공간이 있다면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비록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이지만 도시에서의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니까.
- ⑤ 늦게 등교한 철수가 약속대로 오늘 교실 청소를 전부 해야 하지만 철수는 길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할머니를 도와 드리다 늦은 것이고 누구나 한번쯤은 지각할 수도 있으니, 오늘은 우리 모두가 각자 맡은 구역을 청소하도록 하자.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앞부분 줄거리]

명나라 때 이부시랑(吏部侍郎) 흥무는 나이 사십이 되도록 자녀가 없어 고민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부인 양씨의 꿈에 선녀가 나타난 후 무남독녀 계월을 얻었는데, 그 아이가 어려서부터 대단히 총명하였다. 계월이 다섯 살 때, 장사랑의 반란이 일어나 난리 속에 부모와 헤어진다. 자리에 싸여 강에 던져진 계월은 여공이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다. 여공은 계월의 이름을 평국이라고 고친 후, 동갑인 아들 보국과 함께 곽 도사에게 보내 가르침을 받게 한다. 이후 계월과 보국은 나란히 과거에 급제한다.

오랑캐가 중원을 침범하자 천자의 명에 따라 계월은 원수로, 보국은 부원수로 전쟁터에 나간다. 그러나 보국이 계월의 말을 듣지 않고, 호기를 부리며 나가 싸우다가 크게 패한다. 계월은 이를 벌하려다 여러 장수의 만류로 용서하고, 자기가 직접 나가 적을 무찌른다. 이 과정에서 계월은 헤어졌던 부모와 우연히 만난다.

계월이 전쟁터에 다녀온 후로 병이 매우 깊어지자 천자는 어의를 보내는데, 어의의 진맥으로 계월이 여자임이 탄로 난다. 계월은 상소를 올려 천자를 속인 죄를 청하나, 천자는 이를 너그럽게 용서하며 계월의 벼슬을 그대로 둔 채 보국과의 혼인을 중매한다. 계월은 앞으로 규중에 갇혀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남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을 한스러워하고, ㉔보국은 자기를 군령으로 다스려 조롱한 계월에게 불만을 품으며 두 사람은 갈등을 겪게 된다. 천자의 명에 따라 계월과 보국이 혼례를 치른 다음 날 보국의 애첩인 영춘이 계월의 행차를 보고도 예를 갖추지 않자 ㉕계월은 군법을 적용하여 그의 목을 베게 한다.

(나) 이때 보국은 계월이 영춘을 죽였다는 말을 듣고 분함을 이기지 못해 부모에게 아뢰었다.

“계월이 전날은 대원수 되어 ㉖소자를 중군장으로 부렸으니 군대에 있을 때에는 소자가 계월을 업신여기지 못했사옵니다. ㉗하지만 지금은 계월이 소자의 아내이오니 어찌 소자의 사랑하는 영춘을 죽여 제 마음을 편안하지 않게 할 수가 있단 말이옵니까?”

여공이 이 말을 듣고 만류했다.

“계월이 비록 네 아내는 되었으나 벼슬을 놓지 않았고 기개가 당당하니 죽히 너를 부릴 만한 사람이다. 그러나 예로써 너를 섬기고 있으니 어찌 마음쓰를 그르다고 하겠느냐? 영춘은 네 첩이다. 자기가 거만하다가 죽임을 당했으니 누구를 한하겠느냐? 또한 계월이 잘못해 궁노(宮奴)나 궁비(宮婢)를 죽인다 해도 누가 계월을 그르다고 책망할 수 있겠느냐? 너는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마음을 변치 말라. 만일 계월이 영춘을 죽였다 하고 계월을 꺼린다면 부부 사이의 의리도 변할 것이다. 또한 계월은 천자께서 중매하신 여자라 계월을 싫어한다면 네게 해로움이 있을 것이니 부디 조심하라.”

“장부가 되어 계집에게 괘시를 당할 수 있겠나이까?”

보국이 이렇게 말하고 그 후부터는 계월의 방에 들지 않았다. 이에 계월이, ‘영춘이 때문에 나를 꺼려 오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했다.

“누가 보국을 남자라 하겠는가? 여자에게도 비할 수 없구나.”

이렇게 말하며 자신이 남자가 되지 못한 것이 분해 눈물을 흘리며 세월을 보냈다.

(다) 천자께서 들으시고 오래 있다가 말씀하셨다.

“◎평국이 전날에는 세상에 나왔으므로 불렀지만 지금은 규중에 있는 여자니 차마 어찌 불러서 전장에 보내겠는가?” 이에 신하들이 아뢰었다.

“평국이 지금 규중에 있으나 이름이 조야에 있고 또한 작록을 거두지 않았사오니 어찌 규중에 있다 하여 꺼리겠나이까?” / 천자께서 마지못하여 급히 평국을 부르셨다.

이때 평국은 규중에 홀로 있으며 매일 시녀를 데리고 장기와 바둑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사관(使官)이 와서 천자께서 부르신다는 명령을 전했다. 평국이 크게 놀라 급히 ◎여자 옷을 조복으로 갈아입고 사관을 따라가 임금 앞에 엎드리니 천자께서 크게 기뻐하며 말씀하셨다.

“경이 규중에 처한 후로 오랫동안 보지 못해 밤낮으로 사모하더니 이제 경을 보니 기쁨이 한량없도다. 그런데 짐이 덕이 없어 지금 오와 초 두 나라가 반란을 일으켜 호주의 북쪽 땅을 쳐 항복을 받고, 남관을 헤쳐 황성을 범하고자 한다고 하는도다. 그러니 ◎경은 스스로 마땅히 일을 잘 처리하여 사직을 보호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평국이 엎드려 아뢰었다.

“신첩 외람되게 폐하를 속이고 공후 작록을 받아 영화로 이 지낸 것도 황공했사운데 폐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신첩을 매우 사랑하셨사옵니다. 신첩이 비록 어리석으나 ◎힘을 다해 성문을 만분의 일이나 갇으려 하오니 폐하께서는 근심하지 마옵소서.”

천자께서 이에 크게 기뻐하시고 즉시 수많은 군사와 말을 징발해 주셨다. 그리고 벼슬을 높여 평국을 대원수로 삼으시니 원수가 사은숙배하고 위의를 갖추어 친히 붓을 잡아 보국에게 전령(傳令)을 내렸다.

적병의 형세가 급하니 중군장은 급히 대령하여 군령을 어기지 마라.

보국이 전령을 보고 분함을 이기지 못해 부모에게 말했다.

“계월이 또 소자를 중군장으로 부리려 하오니 이런 일이 어디 있사옵니까?”

(라) 보국이 윤경의 머리를 베어 들고 본진으로 돌아가려는 즈음에, 적장 구덕지가 대로해 긴 칼을 높이 들고

말을 몰아 크게 고함을 치고 달려들었다. 난데없는 적병이 또 사방에서 달려드니 보국이 겁이 나고 두려워 피하려고 했으나 ◎순식간에 적들이 함성을 지르고 보국을 천여 겹으로 에워쌌다. 형세가 위급하므로 보국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 이때 원수가 장대에서 북을 치다가 보국의 위급함을 보고 급히 말을 몰아 긴 칼을 높이 들고 좌충우돌해 적진을 헤치고 구덕지의 머리를 베어 들고 보국을 구했다. 몸을 날려 적진에서 충돌하니 동에 번쩍 서쪽의 장수를 베고, 남으로 가는 듯하다가 북쪽의 장수를 베었다. 이처럼 좌충우돌하여 적장 오십여 명과 군사 천여 명을 한칼로 소멸하고 본진으로 돌아왔다.

보국이 원수 보기를 부끄러워하니 원수가 보국을 꾸짖어 말했다.

“저러고서도 평소에 남자라고 칭하리오? 나를 업신여기더니 이제도 그렇게 할까?” 이렇게 말하며 보국을 무수히 조롱했다.

(마) 이때 원수는 진중에 있으며 적을 무찌를 묘책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자연히 마음이 어지러워 장막 밖에 나가 천기를 살펴보았다. 자미성이 자리를 떠나고 모든 별이 살기등등하여 은하수에 비치고 있었다. 원수가 크게 놀라 ◎중군장을 불러 말했다.

“내가 천기를 보니 천자의 위태함이 경각(頃刻)에 있도다. 내가 홀로 가려 하니 장군은 장수와 군졸을 거느려 진문을 굳게 닫고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고 칼 한 자루를 쥐고 말에 올라 황성으로 향했다. 동방이 밝아 오므로 바라보니 하룻밤 사이에 황성에 다다른 것이었다. 성안에 들어가서 보니 장안이 비어 있고 궁궐은 불에 타 빈터만 남아 있었다. ①원수가 통곡하며 두루 다녔으나 한 사람도 없었다. 천자께서 가신 곳을 알지 못하고 망극해하고 있었는데, 문득 수챗구멍에서 한 노인이 나오다가 원수를 보고 매우 놀라 급히 들어갔다. 원수가 급히 쫓아가며,

“나는 도적이 아니다, 대국 대원수 평국이니 놀라지 말고 나와 천자께서 가신 곳을 일러 달라.” 하니 노인이 그 제야 도로 기어 나와 대성통곡했다. 원수가 자세히 보니 이 사람은 기주후 여공이었다.

- 작자미상, ‘흥계월전’

**분당대진고등학교 (경기)**

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이 소설이 주인공의 행적이 영웅의 일대기 구성을 따르는 적강소설임을 보여주고 있다.
- ② (나)에서 여공은 보국의 말을 듣고 계월에 대한 못마땅함을 애써 감추며 보국을 달래고 있다.
- ③ (다)에서 천자는 평국의 상황에 대한 여러 신하들의 반대로 인해 평국을 전장에 내보내기를 꺼리고 있었다.
- ④ (라)에서 보국은 원수에게 도움까지 청했으나 결국 적들에게 폐하고 말았으므로 원수를 보며 부끄러워하고 있다.
- ⑤ (마)에서 계월이 천기를 보고 천자의 위협을 감지하는 장면은 고전소설의 전기적(傳奇的)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분당대진고등학교 (경기)**

5. ㉠ ~ ㉠ 중 동일한 인물을 가리키는 것끼리 바르게 묶은 것은?

- ① ㉠, ㉡, ㉢                      ② ㉠, ㉢, ㉣
- ③ ㉡, ㉢, ㉣                      ④ ㉢, ㉣, ㉤
- ⑤ ㉢, ㉣, ㉤

**분당대진고등학교 (경기)**

6.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계월과 보국의 갈등이 더욱 고조되는 계기가 된다.
- ② ㉡ : 남편으로서의 권위를 내세워 계월의 처사를 비난하고 있다.
- ③ ㉢ : 개인적 신분에서 사회적 신분으로의 변화를 드러내는 행위가 된다.
- ④ ㉣ : 천자의 뜻에 따라 전장에 나가겠다는 것으로 충군의 유교적 가치를 보여 준다.
- ⑤ ㉣ : 보국이 사상누각(沙上樓閣)의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분당대진고등학교 (경기)**

7. <보기>는 '사씨남정기'의 일부로, 남편을 어떻게 섬기려 하느냐는 시아버지의 질문에 대한 사 씨의 답변이다. 이를 통해 '사 씨'와 '계월'의 가치관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보기>

“고어(古語)에 이르기를 ‘부부의 도는 오륜(五倫)을 고루 겸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비에게는 간언하는 아들이 있고, 임금에게는 간쟁하는 신하가 있습니다. 형제는 서로 정도(正道)로 권면하고, 붕우는 서로 선행을 권유합니다. 부부의 경우라 하여 어찌 유독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자고로 장부가 부인의 말을 들으면 이익은 적고 폐해가 많았습니다. 암탉이 새벽에 울고 철부(哲婦)가 나라를 기울게 하는 것은 경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김만중, '사씨남정기'

pt005pt (카톡 ID)  
내용 질문, 오류 신고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때 보국은 계월이 영춘을 죽였다는 말을 듣고 분함을 이기지 못해 부모에게 아뢰었다.

“계월이 전날은 대원수 되어 소자를 중군장으로 부렸으니 군대에 있을 때에는 소자가 계월을 업신여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계월이 소자의 아내이오니 어찌 소자의 사랑하는 영춘을 죽여 제 마음을 편안하지 않게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공이 이 말을 듣고 만류했다.

“계월이 비록 네 아내가 되었으나 벼슬을 놓지 않았고 기개가 당당하니 족히 너를 부릴 만한 사람이다. 그러나 예로써 너를 섬기고 있으니 어찌 마음쓰를 그르다고 하겠느냐? 영춘은 네 첩이다. 자기가 거만하다가 죽임을 당했으니 누구를 한하겠느냐? 또한 계월이 잘못해 궁노(宮奴)나 궁비(宮婢)를 죽인다 해도 누가 계월을 그르다고 책망할 수 있겠느냐? 너는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마음을 변치 마라.

만일 계월이 영춘을 죽였다 하고 계월을 꺼린다면 부부 사이의 의리도 변할 것이다. 또한 계월은 천자께서 중매하신 여자라 계월을 싫어한다면 네게 해로움이 있을 것이니 부디 조심하라.”

“장부가 되어 계집에게 괘시를 당할 수 있겠나이까?”

보국이 이렇게 말하고 그 후부터는 계월의 방에 들지 않았다. 이에 계월이, ‘영춘이 때문에 나를 꺼려 오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했다.

“누가 보국을 남자라 하겠는가? 여자에게도 비할 수 없구나.”

이렇게 말하며 자신이 남자가 되지 못한 것이 분해 눈물을 흘리며 세월을 보냈다.

각설. 이때 남관(南關)의 수장이 장계를 올렸다. 천자께서 급히 뜯어보시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오왕과 초왕이 반란을 일으켜 지금 황성을 범하고자 합니다. 오왕은 구덕지를 얻어 대원수로 삼고 초왕은 장맹길을 얻어 선봉으로 삼았사온데, 이들이 장수 천여 명과 군사 십만을 거느려 호주 북쪽 고을 칠십여 성을 무너뜨려 항복을 받고 형주 자사 이왕태를 베고 짓쳐왔습니다. 소장의 힘으로는 능히 방비할 길이 없어 감히 아뢰오니 엎드려 바라건대, 황상께서는 어진 명장을 보내셔서 적을 방비하옵소서.

천자께서 보시고 크게 놀라 조정의 관리들과 의논하니 우승상 정영태가 아뢰었다.

“이 도적은 좌승상 평국을 보내야 막을 수 있을 것이오니 급히 평국을 부르소서.”

천자께서 들으시고 오래 있다가 말씀하셨다.

[C] “평국이 전날에는 세상에 나왔으므로 불렀지만 ㉠지금은 규중에 있는 여자니 차마 어찌 불려서 전장에 보내겠는가?”

이에 신하들이 아뢰었다.

“평국이 지금 규중에 있으나 이름이 조야에 있고 또한 작록을 거두지 않았사오니 어찌 규중에 있다 하여 꺼리겠나이까?”

천자께서 마지못하여 급히 평국을 부르셨다.

이때 평국은 규중에 홀로 있으며 매일 시녀를 데리고 장기와 바둑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사관(使官)이 와서 천자께서 부르신다는 명령을 전했다. ㉡평국이 크게 놀라 급히 여자 옷을 조복(朝服)으로 갈아입고 사관을 따라가 임금 앞에 엎드리니 천자께서 크게 기뻐하며 말씀하셨다.

㉢“경이 규중에 처한 후로 오랫동안 보지 못해 밤낮으로 사모하더니 이제 경을 보니 기쁨이 한량없도다. 그런데 짐이 덕이 없어 지금 오와 초 두 나라가 반란을 일으켜 호주의 북쪽 땅을 쳐 항복을 받고, 남관을 헤쳐 황성을 범하고자 한다고 하는도다. 그러니 경은 스스로 마땅히 일을 잘 처리하여 사직을 보호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평국이 엎드려 아뢰었다.

[E] “신첩 외람되게 폐하를 속이고 공후 작록을 받아 영화로 이 지낸 것도 황공했사온데 폐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신첩을 매우 사랑하셨습니다. 신첩이 비록 어리석으나 힘을 다해 성을 만분의 일이나 값으려 하오니 폐하께서는 근심하지 마옵소서.”

천자께서 이에 크게 기뻐하시고 즉시 수많은 군사와 말을 징발해 주셨다. 그리고 벼슬을 높여 평국을 대원수로 삼으시니 원수가 사은숙배하고 위의를 갖추어 친히 붓을 잡아 보국에게 전령(傳令)을 내렸다.

적병의 형세가 급하니 중군장은 급히 대령하여 군령을 여기지 마라.

㉣보국이 전령을 보고 분함을 이기지 못해 부모에게 말했다.

“계월이 또 소자를 중군장으로 부리려 하오니 이런 일이 어디 있사옵니까?”

여공이 말했다.

“전날 내가 너에게 무엇이러 일렸더냐? 계월이를 괘시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으니 어찌 계월이가 그르다고 하겠느냐? 나라일이 더할 수 없이 중요하니 어찌할 수 없구나.”

이렇게 말하고 어서 가기를 재촉했다. 보국이 할 수 없이 갑옷과 투구를 갖추고 진중(陣中)에 나아가 원수 앞에

엎드리니 원수 분부했다.

“만일 명령을 거역하는 자가 있다면 군법으로 시행할 것이다.”

보국이 겁을 내어 중군장 처소로 돌아와 명령이 내려지기를 기다렸다. 원수가 장수에게 임부를 각각 정해 주고 추구월 갑자일에 행군하여 십일월 초하루에 남관에 당도했다. 삼 일을 머무르고 즉시 떠나 오 일째에 천축산을 지나 영경루에 다다르니 적병이 드넓은 평원에 진을 쳤는데 그 단단함이 철통과도 같았다. 원수가 적진을 마주 보고 진을 친 후 명령을 하달했다.

㉠“장수의 명령을 여기는 자는 곧바로 벨 것이다.”

이러한 호령이 추상같으므로 장수와 군졸들이 겁을 내어 어찌할 줄을 모르고 보국은 또 매우 조심했다.

이튿날 원수가 중군장에게 분부했다.

“며칠은 중군장이 나가 싸우라.”

중군장이 명령을 듣고 말에 올라 삼 척 장검을 들고 적진을 가리켜 소리 질렀다.

“나는 명나라 중군 대장 보국이다. 대원수의 명령을 받아 너희 머리를 베려 하니 너희는 어서 나와 칼을 받으라.”

적장 운평이 이 소리를 듣고 크게 성을 내어 말을 몰아 나와서 싸웠다. 삼 합이 못 하여 보국의 칼이 빛나며 운평의 머리가 말 아래에 떨어졌다. 적장 운경이 운평이 죽는 것을 보고 매우 화를 내어 말을 몰아 달려들었다. 보국이 기세등등하여 창을 높이 들고 서로 싸웠다. 몇 합이 못 되어 보국이 칼을 날려 운경이 칼 든 팔을 치니 운경이 미처 손을 놀리지 못하고 칼을 든 채 말 아래에 떨어졌다.

보국이 운경의 머리를 베어 들고 본진으로 돌아가려는 즈음에, 적장 구덕지가 대로해 긴 칼을 높이 들고 말을 몰아 크게 고함을 치고 달려들었다. 난데없는 적병이 또 사방에서 달려드니 보국이 겁이 나고 두려워 피하려고 했으나 순식간에 적들이 함성을 지르고 보국을 천여 겹으로 에워쌌다. 형세가 위급하므로 보국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

이때 원수가 장대에서 북을 치다가 보국의 위급함을 보고 급히 말을 몰아 긴 칼을 높이 들고 좌충우돌해 적진을 헤치고 구덕지의 머리를 베어 들고 보국을 구했다. 몸을 날려 적진에서 충돌하니 동에 번쩍 서쪽의 장수를 베고, 남으로 가는 듯하다가 북쪽의 장수를 베었다. 이처럼 좌충우돌하여 적장 오십여 명과 군사 천여 명을 한칼로 소멸하고 본진으로 돌아왔다.

㉡보국이 원수 보기를 부끄러워하니 원수가 보국을 꾸짖어 말했다.

“저러고서도 평소에 남자라고 칭하리오? 나를 업신여기더니 이제도 그렇게 할까?”

이렇게 말하며 보국을 무수히 조롱했다.

- 작자 미상, 「흥계월전」

**서현고등학교 (경기)**

8. [A] ~ [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미래의 전망이 밝지 않음에 대해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 ② [B]는 부정적 상황을 가정하며 이를 방지할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 ③ [C]는 문제 상황에 대한 대책이 대화 장면을 통해 제시되어 있다.
- ④ [D]는 현재 상황을 언급하며 미래에 해결해야 할 과제를 당부하고 있다.
- ⑤ [E]는 과거의 일을 언급하며 상대방의 요청을 수용하고 있다.

**서현고등학교 (경기)**

9.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계월은 자신의 남편인 보국에게 사랑을 갈구하고 있다.
- ② 여공은 보국이 계월을 싫어하다가 해를 입을까 걱정하고 있다.
- ③ 보국은 자신보다 능력이 뛰어난 계월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
- ④ 여공은 계월이 여자이지만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며 두둔하고 있다.
- ⑤ 보국은 계월과 혼인한 후 사회적 위계질서보다 가부장적 권위를 앞세워 반응하고 있다.

**서현고등학교 (경기)**

10.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여성의 사회활동이 불가능했던 당대 사회상을 알 수 있다.
- ② ㉡ : 여성의 삶을 살던 계월이 다시 조정에 나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 ③ ㉢ : 집안일에 얽매어 있는 계월의 처지에 대한 안타까움을 엿볼 수 있다.
- ④ ㉣ : 가부장적 관습에 의한 남녀 관계가 역전된 양상에 분노를 느끼고 있다.
- ⑤ ㉤ :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며 상대방에게 복종을 강요하고 있다.

# “국어의 어제와 오늘” 발표 행사

<b>강제</b>	강연문	<b>성격</b>	객관적, 예시적, 설명적
<b>제제</b>	국어의 변천, 세계 속 한국어의 위상, 외래어 및 외국어의 사용 문제, 가상 공간에서의 언어 사용 문제		
<b>주제</b>	국어의 변천 및 국어를 사랑하며 (국어 발전)에 참여하는 태도		
<b>특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어체를 사용하여 청자의 수준에 맞게 친근하게 설명함.</li> <li>• 국어의 변천을 표기 및 음운, 문법, 어휘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제시함.</li> <li>• 국어의 변천을 이해하고 국어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시각 자료를 제시하여 내용을 보완함.</li> </ul>		

<b>제1강 국어의 어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세 국어의 대표적 자료인 ‘세종어제훈민정음’ 소개</li> <li>•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표기 및 음운 차이</li> <li>•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문법 차이</li> <li>•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어휘 차이</li> <li>• 국어의 역사성</li> </ul>
<b>제2강 국어의 오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 속 한국어의 위상</li> <li>• 올바른 국어 사용 방법</li> <li>• 국어 사랑과 국어의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의 필요성</li> </ul>

## 1.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표기 및 음운 차이

중세 국어	현대 국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로쓰기와 (이어 적기)(예) .쁘·들, ·노·미)를 함.</li> <li>• 글자 왼쪽에 (방점)을 찍어 성조(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하고, 띄어쓰기를 하지 않음.</li> <li>• ‘ㅇ(옛이음), ㅎ(여린히음), ㅁ(순경음 비음), *-(아래아), △(반치음)’ 등의 자모와 어두 자음군(예) .쁘·메)을 사용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로쓰기와 끊어 적기(예) 뜻을, 놈이)를 함.</li> <li>• 방점을 사용하지 않고, 띄어쓰기를 함.</li> <li>• ‘ㅇ(옛이음), ㅎ(여린히음), ㅁ(순경음 비음), *-(아래아), △(반치음)’ 등의 자모가 사라지고, 어두 자음군이 된소리(예) 쓸에)로 바뀜.</li> </ul>

## 2.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문법 차이

중세 국어	현대 국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교를 나타내는 조사로 ‘(에)’를 사용함. 예) 나랏:말쑥·미중·國·국·에·달·아</li> <li>• 주어를 나타내는 조사로 ‘이/   ’만 사용함. 예) 百·씩·姓·성·이·니르·고·저·홍·배(바+   )·이셔·도</li> <li>• 조사나 어미가 결합할 때 모음 조화가 엄격히 지켜짐. 예) .쯩·룰(양성 모음 + 양성 모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교를 나타내는 조사로 ‘와/과’를 주로 사용함. 예)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li> <li>• 주어를 나타내는 조사로 ‘이/가’를 사용함. 예) 백성이 이르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li> <li>• 조사나 어미가 결합할 때 모음 조화가 엄격히 지켜지지 않음. 예) 자를(양성 모음 + 음성 모음)</li> </ul>

## 3.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어휘 차이

중세 국어 → 현대 국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휘의 형태(예) 서르 &gt; 서로)나 의미(예) 어·린(어리석은) &gt; 어린(나이가 적은))가 달라짐.</li> <li>• 우리말에서 (한자어), 외래어 사용이 증가함.</li> </ul>

## 4. 세계 속 한국어의 위상

<p>‘한국어 능력 시험(TOPIK)’ 지원자 수 및 ‘세종학당’ 학생 수가 늘어남.</p>	→	<p>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문화 발달에 힘입어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역할이 커지면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이 늘어나고 세계 속 한국어의 (위상)이 높아짐.</p>
---	---	---

## 5. 국어 발전에 참여하는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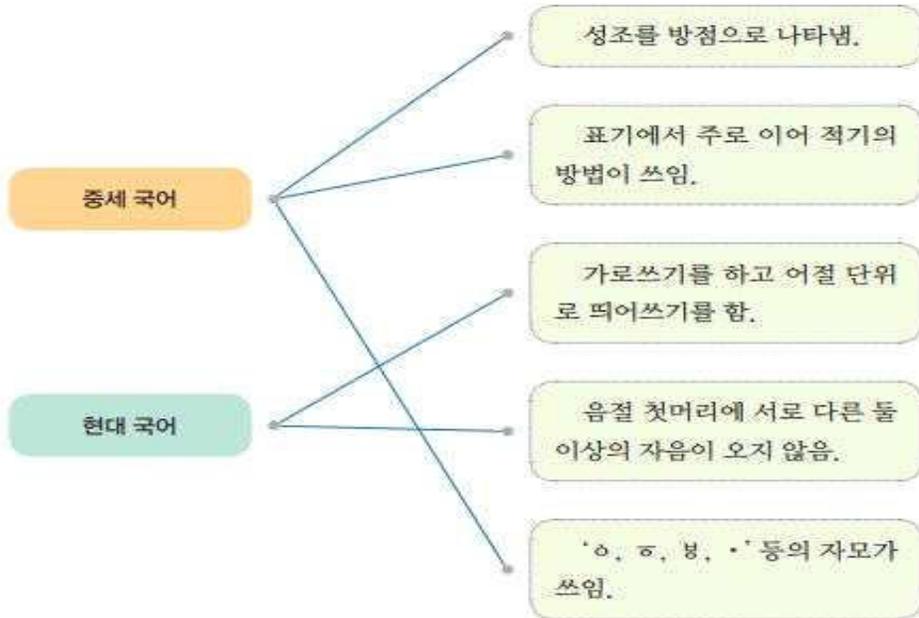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어의 소중함을 깨닫고, 가능하면 외래어나 외국어보다는 고유어나 순화어 사용을 지향함.</li> <li>• (언어 규범)에 유의하며 가상 공간에서도 올바른 국어 표현을 사용함.</li> </ul>
--

# 근대사 학습 활동

1 「국어의 어제와 오늘」을 읽고, 1강에 제시된 ‘어지’를 바탕으로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차이점을 정리해 보자.

世·성宗중御·영製·쟁訓·훈民민正·정음음  
 나·랏·말·쓰·미·中·동國·국·에·달·아·文·문·字·중·와·로·서·르·스·못·디아·니·홀·씨·이·런·전·츠·  
 로·어·린·百·백·姓·성·이·니·르·고·저·홍·배·이·셔·도·무·춤·내·제·쁘·들·시·러·퍼·디·물·홍·노·미  
 하·니·라·내·이·를·爲·영·하·야·어·옛·비·너·겨·새·로·스·물·여·뉘·字·중·를·밍·7·노·니·사·름·  
 마·다·히·여·수·비·니·겨·날·로·부·매·便·便·安·안·키·하·고·저·홍·싸·르·미·나·라  
 -『월인석보(月印釋譜)』, 세조(世祖) 5년(1459)

(1)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표기 및 음운의 특징을 찾아 바르게 연결해 보자.



(2) 다음 중세 국어를 현대 국어로 풀이하고, 중세 국어의 문법적 특징을 써 보자.

중세 국어	현대 국어
나·랏·말·쓰·미·中·동國·국·에·달·아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니·르·고·저·홍·배·이·셔·도	이르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 중세 국어의 문법적 특징:

(1) 국어의 어제와 오늘 401중세 국어에서는 조사 ‘에’가 비교를 나타내는 현대 국어의 조사 ‘와/과’와 같은 의미로 쓰였다. 또한 중세 국어에서는 주어를 나타내는 조사가 ‘이/1’만 쓰였고, 현대 국어에서 끝음절에 받침이 없는 체언 뒤에 붙어 주어를 나타내는 조사 ‘가’가 없었다.

(3) 다음 중세 국어의 의미가 현대 국어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써 보고, 어휘의 변화 양상을 정리해 보자.

중세 국어		→	현대 국어	
어휘	의미		의미	
무·춤·내	마침내		마침내	
:어·옛·비	불쌍히		예쁘게	

### 어휘의 변화 양상

‘무·춤·내’는 중세 국어에서 ‘마침내’를 뜻하는 말로, 현대 국어로 오면서 형태는 ‘마침내’로 변하였고 의미는 변하지 않았다. 이와 달리 ‘:어·옛·비’는 중세 국어에서 ‘불쌍히’를 뜻하는 말로, 현대 국어로 오면서 형태는 ‘어여뻐’로 변하였고, 의미는 ‘예쁘게’로 변하였다. 이처럼 어휘는 그 형태와 의미가 개별적 혹은 복합적으로 변화해 왔다.

9-(1) 국어의 어제와 오늘

2 2장에서 설명한 세계 속 한국어의 위상을 떠올리며 다음 질문에 답해 보자.

- 한국어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한국어 능력 시험(TOPIK)’의 지원자 수와 ‘세종 학당’의 학생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통해 세계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만큼 세계 속 한국어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위와 같은 변화가 나타난 이유는 무엇인가?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역할이 커지면서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한국을 알고 이해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3 2장에 제시된 부적절한 국어 표현을 언어 규범에 맞게 고쳐 보자.

(1) 유니크한 디자인과 비비드한 컬러가 돋보이는 이 상품은 이미 많은 셀럽들이 초이스한 핫아이템입니다. → 독특한 모양과 화려한 색상이 돋보이는 이 상품은 이미 많은 유명 인사가 선택한 최신 유행 상품입니다.



1 ㉞는 한시를 중세 국어로 번역한 것이고, ㉟는 이를 현대 국어로 풀이한 것이다. 다음 활동을 통해 국어의 변천 및 국어와 외래어 또는 외국어의 관계를 살펴보자.

㉞ 가 나라히 破亡(파망)하니 뫼과 江(강)뿐잇고  
 잣 앓보미플와 나모썸기펏도다.  
 - 두보, 「춘망」

㉟ 나 나라가 망(亡)하니 산(山)과 강(江)만 있고  
 성(城)안의 봄에 풀과 나무만 깊어 있구나.

(1) ㉞와 ㉟를 비교하여 ㉞의 밑줄 친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고, 어휘 변화와 관련하여 세 단어의 공통점을 정리해 보자.

단어의 의미	...	공통점
• 뫼 ㅎ: 산(山) • 江: 강(江) • 잣: 성(城)	...	고유어가 한자어로 대체됨.

(2) 앞의 활동 (1)과 같은 어휘 변화가 일어난 이유가 무엇일지 추측해 보자.

한자어가 유입되어 널리 쓰이면서, 고유어가 사라지고 한자어가 그 자리를 대체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변화로 보인다.

9-(1) 국어의 어제와 오늘

(1) 다음 외국어를 어떻게 순화하였는지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에서 찾아보자.

외국어(다듬을 말)	순화어(다듬은 말)
더치페이(Dutch pay)	각자내기
버킷 리스트(bucket list)	소망 목록
다크서클(dark circle)	눈그늘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世宗宗御製增補訓民正音

㉠나랏:말썸미 ㉡中동國:국에 달아 文文字:종와로 서르 스  
 못디 아니홀씨 ·이런 전·초로 어·린 百·백·姓·성·이 니르·고·져 ·  
 홀 ㉢배 아·셔·도 ㅁ·츨·내·제 ·ㅅ·들 사·러 퍼·디 :ㅁ·홀 ·노·미 하  
 니·라 ·내 ·아·를 ㉣爲·왕·하·야:어·옛·비 너·겨 새·로 ㉤스·물·여·들  
 字·종·를 ㅁ·ᄫ·노·니 :사·름·마·다 :하·여 :수·비 나·겨 ·날·로 ·뿌·매  
 便·便·安·안·히 ㅎ·고·져 홀 썸·르·미·나·라

<훈민정음> 언해, 1459년

[현대어 풀이]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것을 가엾게 여겨 새로 스물여덟 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 데에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가락고등학교 (서울)**

1. 윗글을 읽고 국어의 변천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중세 국어는 현대 국어와 달리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 ② 중세 국어는 현대 국어와 달리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 ③ 중세 국어는 현대 국어와 달리 방점을 찍어 성조를 표시하였다.
- ④ 중세 국어의 ‘·’(아래 아)는 현대 국어에서 더 이상 음운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 ⑤ 중세 국어는 현대 국어와 달리 단어의 첫머리에서 둘 이상의 자음이 쓰일 수 없었다.

**가락고등학교 (서울)**

2. ㉠~㉤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 ‘ㅅ’은 현대 국어 관형격 조사에 해당하겠군.
- ② ㉡의 ‘에’는 부사격 조사의 기능을 하고 있군.
- ③ ㉢의 ‘ㅣ’는 주격조사로, 현대 국어와 다른 형태가 사용되었군.
- ④ ㉣의 ‘하야’를 보니 모음조화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군.
- ⑤ ㉤을 보니 원순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군.

**가락고등학교 (서울)**

3. 윗글에 사용된 단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말썸’은 ‘일반적인 말’을 의미했지만, 오늘날 남의 말을 높여 이르는 말이나 자기 말을 낮추어 이르는 말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의미 확대의 예이다.
- ② ‘사뭇다, 전초’는 오늘날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어휘 소멸의 예이다.
- ③ ‘어리다’는 ‘어리석다’를 의미했는데, 오늘날 ‘나이가 적다’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의미 이동의 예이다.
- ④ ‘놈’은 ‘일반 사람’을 의미했지만 오늘날 ‘남자,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 쓰여 의미 축소의 예이다.
- ⑤ ‘어옛보다’는 ‘가엾다’를 의미했지만, 오늘날 ‘예쁘다’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의미 이동의 예이다.

**가락고등학교 (서울)**

4. <보기>의 ㉠, ㉡, ㉢의 사례를 순서대로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 ‘ㅇ’을 입시울소리 아래 니어 쓰면 ㉠입시울 가배야본 소리 드외느니라
- [현대어 풀이] ㅇ을 순음 아래 이어 쓰면 순경음이 된다.
- ·와 -와 ㅁ와 ㅂ와 ㅅ와 ㅈ와 ㅊ는 ㉡첫소리 아래 브터 쓰고 ㅣ와 ㅏ와 ㅑ와 ㅓ와 ㅕ와 ㅗ와 ㅛ와 ㅜ와 ㅠ는 ㉢올흔녀긔 브터 쓰라.
- [현대어 풀이] ·와 -와 ㅁ와 ㅂ와 ㅅ와 ㅈ와 ㅊ는 첫소리 아래 붙여 쓰고 ㅣ와 ㅏ와 ㅑ와 ㅓ와 ㅕ와 ㅗ와 ㅛ는 오른쪽에 붙여 쓰라.

- |             |       |     |
|-------------|-------|-----|
| ㉠           | ㉡     | ㉢   |
| ① 文文字:종     | 나랏    | 퍼디  |
| ② 百·백·姓·성·이 | ㅎ·고·져 | 니겨  |
| ③ ㅁ·ᄫ·노·니   | 이런    | 달아  |
| ④ ㅁ·홀       | ㅁ·츨·내 | 시러  |
| ⑤ 수·비       | ㅁ·홀   | 하나라 |

**가락고등학교 (서울)**

5. <보기>는 훈민정음 창제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이를 바탕으로 ㉠, ㉡에 해당하는 음운을 각각 쓰시오.

<보기>

훈민정음은 상형의 원리에 따라 기본자를 만든 다음 이를 기초하여 나머지 글자를 만들었다. 자음은 ㉠기본자에 가획을 하여 만들었으며, 가획의 원리에서 벗어난 글자인 이체자가 있었다. 모음도 먼저 ㉡기본자를 만든 후, 이 기본자를 합성시켜 초출자와 재출자를 만들었다.

**가락고등학교 (서울)**

6. <보기>의 단어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중세국어 표기법을 쓰시오.

<보기>

• 말쓰미 • 뿌메	• ㅼ들 • ㅅ꺠미나라
---------------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世宗宗御製訓民正音

㉠나랏:말쓰미 中興國에 ㉡달아 文文字:종:와로 서르 스  
 ㅅ:디 아니홀씨 ·이런 전:초:로 어린 ㉢百:백:姓:성:이 니르:고:져  
 ·㉣흙:배 이:셔:도 ㅁ:춤:내:제 ㉤ㅼ:들 사:러 퍼:디 :ㅁ:홀 :노:미  
 하나라 ·내 ·아:를 爲:왕:하:야:어:옛:비 너:겨 ·새:로 ·스:믈:여:들  
 字:종:를 ㅁ:꺠:노:니 :사:름:마:다 :하:여 :수:비 너:겨 ·날:로 ·뿌:메  
 便:便:安:안:키 ㅎ:고:져 ㅎ: ㅅ:꺠:미:나라

**구미고등학교 (경북)**

7. 윗글의 ㉠~㉤을 통해 알 수 있는 중세국어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 : 부사격 조사를 표기할 때 ‘ㅅ’을 사용하여 표기하였다.
- ② ㉡ : 용언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이어질 때 이어 적기하여 표기하였다.
- ③ ㉢ : 한자어를 표기할 때 형식적으로 종성 ‘ㅇ’을 사용하여 초성, 중성, 종성을 모두 표기하였다.
- ④ ㉣ : 주격 조사를 쓸 때 모음 뒤에서는 주격 조사를 쓰지 않고 생략하였다.
- ⑤ ㉤ : 초성을 쓸 때 합용 병서를 단어의 첫머리에 써서 어두 자음군을 표기하였다.

**구미고등학교 (경북)**

8. <보기>는 윗글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중세국어와 현대 국의 차이점을 탐구한 자료 중 일부이다. 탐구자료 ㉠~㉤에 들어갈 적절한 예시만을 짝지은 것은?

<보기>		
탐구 영역	탐구 자료	탐구 내용
음운의 측면	㉠	가연 : 중세국어 시기에는 두음 법칙이 없었다고 볼 수 있군.
어휘의 측면	㉡	나연 : 국어가 변화하면서 어떤 어휘는 없어지기도 하고, 어떤 어휘는 그 의미가 바뀌기도 하는군.
문법과 문법 요소 측면	㉢	다연 : ‘가’가 쓰일 자리에 다른 형태가 쓰인 것을 보니 현대국어와 달리 중세국어 시기에는 주격조사 ‘가’가 없었구나.

- |        |      |                  |
|--------|------|------------------|
| ㉠      | ㉡    | ㉢                |
| ① 서르   | 어옛브다 | :ㅁ:홀 ·노:미 하나라    |
| ② 니르고져 | 어리다  | 흙 ·배 이:셔:도       |
| ③ 날로   | 전초   | 나랏 :말쓰미          |
| ④ 너겨   | 놈    | ·스:믈:여:들 字:종:를   |
| ⑤ 사름마다 | 나라   | 百:백:姓:성:이 니르:고:져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世宗宗御製訓民正音

나랏:말쓰미 中興國에 달아 文文字:종:와로 서르 스  
 ㅅ:디 아니홀씨 ·이런 전:초:로 ㉠어린 百:백:姓:성:이 니르:고:져 ·  
 ㅎ:배 이:셔:도 ㅁ:춤:내:제 ㅼ:들 사:러 퍼:디 :ㅁ:홀 ㉡노:미 하  
 하나라 ·내 ·아:를 爲:왕:하:야:㉢어:옛:비 너:겨 ·새:로 ·스:믈:여:들  
 字:종:를 ㅁ:꺠:노:니 ㉣사:름:마:다 :하:여 :수:비 너:겨 ·날:로 ·뿌:  
 메 便:便:安:안:키 ㅎ:고:져 ㅎ: ㅅ:꺠:미:나라

- 「훈민정음(訓民正音)」 언해본에서

현대어 풀이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것을 가엾게 여겨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 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동방고등학교 (대전)**

9. 윗글의 ㉠~㉡ 중, <보기>의 설명과 관련 없는 것은?

<보기>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신생, 성장, 소멸한다. 마찬가지로 단어의 의미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데, 의미 영역이 확대되기도 하고(의미 확대), 반대로 축소되기도 하며(의미 축소), 전혀 다른 의미로 변화하기도 한다.(의미 이동).

① ㉠ : 말씀                      ② ㉡ : 어리다                      ③ ㉡ : 놈  
④ ㉠ : 어엿브다                      ⑤ ㉡ : 사람

**동방고등학교 (대전)**

10. 윗글을 읽고 중세 국어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대 국어와 달리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다.
- ② 현대 국어에서는 소실된 음운을 사용하고 있다.
- ③ 체언과 조사를 적을 때 그 체언의 원형을 밝혀 적었다.
- ④ 초성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는 어두 자음군이 존재했다.
- ⑤ 비교의 의미를 드러내는 부사격 조사가 현대 국어와는 다른 형태로 존재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랏:말싸미 中國·국·에 달·아 文·문·字·종·와·로 서 르 스·뫓·디 아·니·힐·씨 ·이·런 전·초·로 어·린 百·백·姓·성·이 니르·고·져 ㉡·홍·배 이·셔·도 무·춤·내·제 ㉢ 시·러·퍼·디·물·홍·노·미·하·니·라·내·이·를·爲·왕·하·야 :어·엿·비·너·겨·새·로·스·믈 여·름·字·종·를 밧·고·노·니 :사·름·마·다 :히·여 :수·비·너·겨·날·로· ㉣·뽕·매 便·便·安 한·키·하·고·저·흥·썩·르·미·나·라.

(나) 乃·냉·終·중·기 소리는 다시 첫소리를 ㉤·쓰·느·니·라  
○·를 입시울소리 아래 니쓰면 입시울가비아·본·소리 득·외·느·니·라.  
첫소리를 어울워 뽕디면 굴·바·쓰·라 냉·終·중·기 소리도 흥·가·지·라  
- 「훈민정음」 언해

(다) 불·휘 기·픈 ㉥·남·근 부·르·매 아·니 뽕·씨  
곶·도·코 여·름 하·느·니  
시·미 기·픈 ㉦· ㄱ·믈·래 아·니 그·츨·씨  
내·히 이·러 바·르·래 가·느·니  
- 「용비어천가」, <제2장>

**해운대학교 (부산)**

11. (가), (나)에 나타난 중세국어의 음운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초성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는 어두자음군이 있었다.
- ② 지금은 쓰이지 않는 자음 ‘△’과 ‘▽’이 존재하였다.
- ③ 평성, 거성, 상성, 입성을 방점의 개수로 구분하였다.
- ④ 종성에서 ‘ㄷ’과 ‘ㅅ’이 다르게 발음되었다.
- ⑤ 종성에 음가가 없는 ㅇ이 있었다.

**해운대학교 (부산)**

12. <보기>와 어휘의 변화의 양상이 같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보기>

ㄱ. ‘전·초’는 원래 까닭이나 이유를 뜻하는 말이었으나 지금은 사라진 단어이다.  
ㄴ. ‘스랑하다’는 원래 ‘생각하다’와 ‘사랑하다’의 의미로 쓰였으나 지금에 와서는 ‘사랑하다’의 의미로 쓰인다.  
ㄷ. ‘식식하다’는 원래 ‘엄하다’의 뜻이었으나 지금은 ‘용감하다’의 의미로 쓰인다.

- |   |     |     |      |
|---|-----|-----|------|
|   | ㄱ   | ㄴ   | ㄷ    |
| ① | 말씀  | 불휘  | 어리다  |
| ② | 불휘  | 어리다 | 놈    |
| ③ | 하다  | 놈   | 어엿브다 |
| ④ | 스뫓다 | 하다  | 어엿브다 |
| ⑤ | 스뫓다 | 말씀  | 어엿브다 |

**해운대학교 (부산)**

13. ㉠~㉥에 나타난 중세 국어의 문법적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무정 명사에 결합되는 관형격 조사 ‘ㅅ’이 쓰였다.
- ② ㉡ :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주격 조사가 생략되었다.
- ③ ㉢ : 명사형 어미 ‘-음’이 쓰였다.
- ④ ㉣ :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느-’가 쓰였다.
- ⑤ ㉤ : 조사와 결합할 때 ‘ㄱ’이 덧붙는 체언이 쓰였다.

# 근거서 학습 활동

1 ㉔의 시조와 ㉕의 속담을 바탕으로 우리말의 담화 관습을 알아보자.

㉔ 말하기 좋다 하고 남의 말을 말을 것이 남의 말 내 하면 남도 내 말 하는 것이 말로써 말이 많으니 말 말을까 하노라 - 작자 미상
㉕ ㉗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 ㉘ 아 해 다르고 어 해 다르다. ㉙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1) ㉔의 화자가 보이는 ‘말’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말해 보자.

㉔의 화자는 남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내가 남에 대해 함부로 말하면 남도 똑같이 나에게 대해 함부로 말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함부로 말하지 말고 신중하게 말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2) ㉕에 제시된 속담의 뜻을 찾아보고, 세 속담이 공통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인지 정리해 보자.

속담	뜻	교훈
㉗	말은 비록 발이 없지만 천 리 뺏까지도 순식간에 퍼진다.	말은 멀리까지 순식간에 퍼지고, 길어질수록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된다. 또한 말이란 같은 내용이라도 표현에 따라 듣는 사람이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 세 속담은 공통적으로 말을 삼가고 꼭 필요한 말만 가려서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교훈을 전하고 있다.
㉘	같은 내용의 이야기라도 표현하는 데 따라서 다르게 들린다.	
㉙	가루는 체에 칠수록 고와지지만 말은 길어질수록 거칠어져 시비가 붙을 수 있고 마침내는 말다툼까지 가게 된다.	

(3) ㉔와 ㉕에 공통으로 반영된 우리말의 담화 관습을 정리해 보자.

가 와 나 에는 ‘말’을 중요하게 여겨 불필요한 말을 삼가고, 대화 상대나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말만 조심스럽게 하는 ‘신중하게 말하기’의 담화 관습이 반영되어 있다.

2 다음 글에서 ‘김 선생’이 한 말의 의도와 표현을 바탕으로 우리말의 담화 관습을 살펴보자.

김 선생은 담소를 즐겨 하였다.  
 그가 일찍이 벼의 집을 찾아간 적이 있었다. 주인은 술상을 내오되 안주는 단지 채소뿐이라며 먼저 사과부터 하는 것이었다.  
 “집은 가난하고 시장마저 멀다네. 맛있는 음식일랑 전혀 없고 담박한 것뿐이네. 그저 부끄러울 따름일세.”  
 그때 마침 한 무리의 닭들이 마당에서 어지럽게 모이를 쪼고 있었다.  
 김 선생이 그를 보며 말하였다.  
 “대장부는 천금(千金)도 아까워하지 않는 법이네. 내 말을 잡아 안주를 장만하게.”  
 “하나뿐인 말을 잡으라니, 무엇을 타고 돌아가겠다는 말인가?”  
 “닭을 빌려 타고 가려네.”  
 김 선생의 대답에 주인은 크게 웃고서 닭을 잡아 대접하였다.  
 - 서거정, 「차계기환(借鷄騎還)」

(1) ‘김 선생’이 다음과 같이 말한 의도를 파악하고, 그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직접적인 표현으로 바꾸어 보자.

9-(2) 우리말의 담화 관습 다시 보기

↗	‘김 선생’이 말한 의도	↘
자신을 인색하게 대접하는 친구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닭을 잡아 안주를 내오라는 자신의 요구를 드러내고자 함.		
“닭을 빌려 타고 가려네.”		바꾼 표현 “마당에 있는 닭을 잡아 안주를 내오게.”

(2) 앞의 활동 (1)을 바탕으로 ‘김 선생’의 말하기 방식에서 드러나는 특징을 파악하고, 이러한 담화 관습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말해 보자.

김 선생은 자신을 인색하게 대접하는 친구의 잘못을 직설적으로 지적하지 않고 부드럽게 돌려 말함으로써 친구와의 관계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이 ‘돌려 말하기’는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을 완곡하게 돌려 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자신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전달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신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못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3 다음 대화에서 드러나는 우리말의 담화 관습을 파악해 보자.

뉴스 진행자 오늘 이분과의 만남을 매우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고, 또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어떤 화려한 수식어보다, 그냥 이름 석 자로 소개해 드리는 게 이분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5년 만에 새 앨범으로 돌아온 ○○ 씨. 현장 방송으로 이곳에 나와 주셨습니다. 뉴스에서 현장 방송으로 출연하는 건 처음이실 것 같은데, 모시게 됐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출연자 안녕하세요. 영광입니다.

뉴스 진행자 제가 어떠한 수식어도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한 평론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혁명적 존재였다. 혹시 동의하십니까?

출연자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과찬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음악하는 사람이고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거리들을 많이 만드는 게 제 일인데, 혁명까지는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 제이티비시(JTBC) 「뉴스룸」(2014. 10. 20.)

(1) ‘출연자’의 말하기 방식에서 드러나는 우리말의 담화 관습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자.

출연자는 뉴스 진행자가 자신을 칭찬하는 말에 대해 과찬의 말씀이라며 겸손하게 대답하고 있다. 즉 출연자의 말하기 방식에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갖추면서 자기를 낮추어 말하는 ‘겸손하게 말하기’의 담화 관습이 드러난다

(2) 앞의 활동 (1)에서 파악한 우리말의 담화 관습을 활용한다면 다음 상황에서 ‘정연’이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좋을지 써 보자.

정연아, 너 토론 대회에서 상 받았대며? 어쩐 그렇게 말재주가 좋니?	말재주가 좋기는……. 토론 대회 내내 내가 얼마나 말재주가 없는지 새삼 느꼈는걸.
--	--

4 다음 글을 바탕으로 선조들이 강조했던 우리말의 담화 관습에 대해 알아보자.

㉞ 남이 지난 일이나 색다른 얘기를 할 때에는 이미 들은 것이라도 그가 신나게 말하거든 끝까지 자세하게 들을 것이지, 중간에 가로막고 이러쿵저러쿵하며 “나는 벌써부터 자세히 아는 일인데, 그대는 이제야 들었구려. 거듭 말할 것 없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㉟ 음담패설, 도리에 안 맞는 말, 허황된 말, 과장된 말, 남을 헐뜯는 말, 속이는 말이나 도에 지나쳐 가혹한 말, 원한이 섞인 말 등을 듣거든 수작하지 말고 슬금슬금 물러서라.

- 이덕무, 『사소절』

9-(2) 우리말의 담화 관습 다시 보기

(1) 밑글에서 강조한 담화 관습은 무엇인지 적어 보자.

- ㉞: 상대방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듣기(경청하기)
- ㉟: 상대방의 말을 신중하게 판단하며 가려듣기

(2) ㉞와 ㉟에서 예로 든 상황과 유사한 경험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자신은 어떤 듣기 태도를 보였는지 말해 보자.

친구 진호와 놀던 중에 진호가 재원이와 다툰 얘기를 하면서 재원을 헐뜯기 시작했다. 나는 옆에서 잠자코 그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재원이가 나타나 내가 진호와 함께 자기를 헐뜯었다고 오해를 하는 바람에 한동안 재원 이와 사이가 서먹해졌다. 그날의 경험을 통해 도리에 맞지 않거나 남을 헐뜯는 말은 가려듣고, 그와 같은 자리는 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1 다음 대화에 나타난 우리말의 담화 관습을 성찰해 보자.

유슬 엄마 진목아, 연주 잘 봤어. (진목의 어깨를 토닥이며) 지난달보다 많이 늘었더라. 연습 많이 했대며?

진목 (대답 없이 유슬 엄마의 손을 뿌리친다.)

유슬 엄마 부모님이랑 같이 안 왔구나. 내가 학원까지 데려다줄까?

진목 (인상 쓰며) 필요 없습니다. (유슬 엄마를 지나친다.)

유슬 야!

진목 (가다가 멈추고 뒤돌아 유슬을 바라본다.)

유슬 너 일부러 떨어뜨린 거지? 내 악보. 실수인 척 애쓰긴 했는데, 너 되게 티났어. 근데 어찌냐? 나 악보 다 외우고 있었거든.

진목 지금 천재라고 잘난 척하는 거냐?

유슬 (웃음) 아니, 몇 번을 말하니? 난 천재가 아니라니까. 그냥 (진목에게 다가 가서) 니가 별것 아닌 거야.

진목 뭐?

- 박혜련·허윤숙, 「페이지 터너」 제1부

(1) ‘진목’과 ‘유슬’의 말에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을 찾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적어 보자.

	적절하지 않은 표현		적절하지 않은 이유
‘진목’	필요 없습니다.	→	진목과 유슬은 신중하게 말하지 않고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함부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며 예의를 갖추는 태도도 부족함.
‘유슬’	아니, 몇 번을 말하니? 난 천재가 아니라니까. 그냥 니가 별것 아닌 거야.		

(2) 앞의 활동 (1)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의사소통이 되려면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진목’과 ‘유슬’에게 조언해 보자.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대화 상대나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말해야 하며,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9-(2) 우리말의 담화 관습 다시 보기

2 다음 담화 상황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 보자.

㉠ 이렇게 쉬운 문제도 틀리다니, 넌 공부를 하긴 하는 거니?

㉡

어휴. 이번에 성적이 또 떨어졌어.	난 역시 천재인가 봐. 또 백 점 맞았어.
---------------------	----------------------------

㉢

이번 소풍 말아야…….	어디로 간대?
그러니까 오늘 학급 회의…….	꼭 가야 해? 난 안 가고 싶은데…….

(1) 듣기·말하기 태도와 관련하여 ㉠~㉢에 나타난 문제점을 정리해 보자.

㉠	㉡	㉢
문제를 틀린 친구에게 직접적으로 그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하여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함.	성적이 떨어져 힘들어하는 친구의 고민을 무시한 채, 자신의 성적이 잘 나왔음을 과시적으로 드러냄.	친구의 말을 중간에 끊으며 자신의 말만 하는 등 상대방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음.

(2) 앞의 활동 1 에서 학습한 우리말의 담화 관습을 활용하여 ㉠~㉢에 나타난 문제점을 어떻게 고치는 것이 좋을지 적어 보자.

우리말의 담화 관습			고친 표현
㉠	돌려 말하기	→	문제가 어려웠나 보구나? 어디서 실수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자.
㉡	겸손하게 말하기	→	성적이 떨어져 속상하겠다. 이번 시험은 좀 어려웠던 것 같아
㉢	경청하고 가려듣기	→	(상대방의 말을 다 듣고) 학급 회의에서 결정된 소풍 장소가 어디지?

(3) ㉠~㉢와 같이 적절하지 않은 담화 자료를 영화나 방송 등에서 찾아 바르게 고쳐 보자.

적절하지 않은 담화		고친 내용
예능 방송에서 재미를 위해 비속어나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음.	→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예의를 갖추어 올바른 표현을 사용해야 함.

9-(2) 우리말의 담화 관습 다시 보기

3 다음 면접 담화 상황을 바탕으로 오늘날의 바람직한 의사소통 방법을 알아보자.

㉒ 능력이 많이 부족하고 실무 경험도 적은 편이지만, 저를 뽑아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㉓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인턴 활동을 하며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꾸준히 성장하는 저의 모습이 궁금하시다면 저를 뽑아 주십시오.
---	---

(1) 담화 상황을 고려했을 때 ㉒와 ㉓ 중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고르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말해 보자.

면접 담화 상황에서 더 적절한 표현은 나 이다. 왜냐하면 면접 담화 상황에서는 자신의 장점을 드러냄으로써 상대방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가 와 같이 겸손하게 표현하다가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지 못하면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2) 앞의 활동 (1)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의 발전을 위해 과거의 담화 관습을 어떻게 수용하고 계승해야 할지 논의해 보자.

앞의 활동 (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의사소통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말의 담화 관습을 무조건 수용할 것이 아니라, 비판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고 오늘날의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계승해야 한다.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 안에서는 각 언어 공동체 특유의 담화 관습이 있다. 우리말에도 다음과 같이 우리말을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지켜 내려온 담화 관습이 존재한다. 다음을 봅시다.

- 신중하게 말하기 : 말을 중요하게 여겨 불필요한 말을 삼가고, 대화 상대나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말만 조심히 한다.
- 돌려 말하기 : 직설적으로 말하며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이나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을 완곡하게 돌려 말한다.
- 겸손하게 말하기 : 상대방을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면서 자기를 낮추어 말한다.
- 경청하고 말하기 : 상대방이 하는 말이 관심을 끌지 않더라도 귀 기울여 끝까지 잘 듣고, 도리에 맞지 않거나 남을 헐뜯는 말 등은 가려 듣는다.

그렇다면,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세 살 먹은 아이 말도 귀담아 들으랬다.'에 나타난 속담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알아봅시다.

**의정부여자고등학교 (경기)**

1. <보기>를 바탕으로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김 선생은 담소를 즐겨 하였다.

그가 일찍이 벗의 집을 찾아간 적이 있었다. 주인은 술상을 내오되 안주는 단지 채소뿐이라며 먼저 사과부터 하는 것이었다.

“집은 가난하고 시장마저 멀다네. 맛있는 음식일랑 전혀 없고 담박한 것뿐이네. 그저 부끄러울 따름일세.”

그때 마침 한 무리의 닭들이 마당에서 어지럽게 모이를 쪼고 있었다.

김 선생이 그를 보며 말하였다.

“대장부는 천금(千金)도 아까워하지 않는 법이네. 내 말을 잡아 술안주를 장만하게.”

“하나뿐인 말을 잡으라니, 무엇을 타고 돌아가겠다는 말인가?”

“㉠닭을 빌려 타고 가려네.”

김 선생의 대답에 주인은 크게 웃고서 닭을 잡아 대접하였다.

- 서거정, 「차계기환(借鷄騎還)」

(1) 김 선생이 ㉠에서 말한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바꾸어 표현하시오.

(2) ㉠에 드러난 담화 관습의 특징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조건>

- 4개의 담화 관습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밝힐 것.
- 이 담화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할 것.

**의정부여자고등학교 (경기)**

2. ㉠, ㉡의 속담이 윗글에 제시된 담화 관습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조건>에 맞게 쓰시오.

<조건>

- 4개의 담화 관습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각각 밝힐 것.

pt005pt (카톡 ID)  
내용 질문, 오류 신고

**의정부여자고등학교 (경기)**

**3.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새말은 보통 완전히 새로운 소리를 사용해서 만들 수도 있고, 있던 말을 단어 형성법에 기대어 만들 수도 있다. 단어 형성법에 기대어 새말을 만드는 방법에는 파생의 방법과 합성의 방법이 있다. 파생의 방법은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어근의 앞이나 뒤에 접사를 붙이는 방법이고, 합성의 방법은 어근과 어근을 결합하는 방법이다.

(1) <보기1>의 ㉠ ~ ㉣에 해당하는 적절한 단어를 쓰시오.

<보기1>

- 나인족 : 나인(어근) + 족( ㉠ )을(를) 결합하는 ( ㉡ )의 방법을 활용한 단어이다.
- 꽃미남 : 꽃( ㉢ ) + 미남( ㉣ )을(를) 결합하는 ( ㉤ )의 방법을 활용한 단어이다.

(2) <보기2>에서 제시된 단어에 대해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보기2>  
불고기, 소리꾼

• <보기1>처럼 분석하여 서술할 것.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 안에서는 각 언어 공동체 특유의 담화 관습이 있다. 우리말에도 다음과 같이 우리말을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지켜 내려온 담화 관습이 존재한다. 특히 신중하게 말하기, 돌려 말하기, 겸손하게 말하기, ㉠경청하고 가려듣기 등이 그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은 사회·문화적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 따라서 과거 우리말의 담화 관습을 비판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고, 오늘날의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그것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계승할 필요가 있다.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언어생활을 성찰하면서 담화 상황에 맞는 적절한 의사소통 방법을

**용호고등학교 (경기)**

**4. 윗글에서 ㉠이 드러난 담화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 : 너는 참 공부를 열심히 하는구나. 대단해.  
나 : 아니야. 게을러서 이제라도 조금하는 것뿐이야.
- ② 가 : 이렇게 쉬운 문제도 틀리다니, 넌 공부를 하긴 하는 거니?  
나 : 매일 복습을 하긴 했는데…….
- ③ 가 : 유진이는 노래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구나.  
나 : 아니에요.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는데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 ④ 가 : 집이 참 좋네요. 구석구석 어찌면 이렇게 정돈이 잘 되어 있는지……. 사모님 살림 솜씨가 대단하신데요.  
나 : 부족한 살림 솜씨를 칭찬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 ⑤ 가 : 컴퓨터 사용 시간을 한 시간 연장하는 대신 반드시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한 시간 이상은 들어야 한다. 알겠지?  
나 : 네, 그럼 강의 먼저 듣고 컴퓨터를 사용할게요.

**용호고등학교 (경기)**

5. 밑글 참고하여 ㉑ ~ ㉔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면접 담화 상황]

- ㉑ 능력이 많이 부족하고 실무 경험도 적은 편이지만, 저를 뽑아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 ㉒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인턴 활동을 하며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꾸준히 성장하는 저의 모습이 궁금하시다면 저를 뽑아 주십시오.

- ① ㉑는 예의를 갖추면서 자기를 낮추어 겸손하게 말한 표현이다.
- ② ㉑와 같은 말하기는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 형성을 위해 수정되어야만 한다.
- ③ ㉒는 자신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서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표현이다.
- ④ ㉑와 ㉒는 면접 담화 상황에서 자신의 의도를 적절하게 잘 드러내고 있다.
- ⑤ ㉑보다는 ㉒로 표현하는 것이 오늘날의 면접 담화 상황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말하기 좋다 하고 남의 말을 말을 것이  
남의 말 내 하면 남도 내 말 하는 것이  
말로써 말이 많으니 말 말을까 하노라

(나)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

아 해 다르고 어 해 다르다.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살은 쏘고 주워도 말은 하고 못 좁는다.

(다) 김 선생은 담소를 즐겨 하였다. 그가 일찍이 벗의 집을 찾아간 적이 있었다. 주인은 술상을 내오되 안주는 단지 채소뿐이라며 먼저 사과부터 하는 것이었다. “집은 가난하고 시장마저 멀다네. 맛있는 음식일랑 전혀 없고 담박한 것뿐이네. 그저 부끄러울 따름일세.” 그때 마침 한 무리의 닭들이 마당에서 어지럽게 모이를 쪼고 있었다.

김 선생이 그를 보며 말하였다.

“대장부는 천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법이네. 내 말을 잡아 안주를 장만하게.”

“하나뿐인 말을 잡으라니, 무엇을 타고 돌아가겠다는 말인가?”

㉑“닭을 빌려 타고 가려네.”

김 선생의 대답에 주인은 크게 웃고서 닭을 잡아 대접하였다.

(라) 고려 말, 이방원은 이성계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던 정몽주를 회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시조를 지어 불렀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 만수산 드령침이 얽혀진들 어떠하리 / 우리도 이렇게 얽혀져 백 년까지 누리리라.”

조서 시대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 즉위 초에 경연과 정무를 소홀히 하였던 광해군이 내관 이봉정에게 살이 찐 이유를 묻자 “소신이 선왕(先王)을 모실 때, 선왕께서 공사청(公事廳)에 납시어 나랏일을 열심히 하시었기 때문에 옆에서 모시느라 낮에는 밥먹을 겨를이 없었고 밤에도 편히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하께서 공사청에 납시지 않아 소신은 종일 태평하게 쉬고 고달픈 일이 없으니, 어찌 살이 찌지 않겠습니까?”라고 대답하였다고 한다.

\* 공사청(公事廳) 조선 시대에 임금의 명을 전하는 내시가 근무하던 곳.

**천안여자고등학교 (충남)**

6. (가)와 (나)에 드러나는 ‘말’에 대한 인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말을 할 때는 핵심만 간결하게 말해야 한다.
- ② 말하기를 좋아하면 가벼운 사람이 될 수 있다.
- ③ 남의 이야기는 함부로 하지 말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
- ④ 말보다 행동으로 솔선수범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 ⑤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여 듣기 좋은 말만 해야 한다.

**천안여자고등학교 (충남)**

7. (다)의 ㉑과 같은 말하기를 하기에 적절한 상황은?

- 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말을 할 때
- ② 상대방에게 칭찬이나 축하의 말을 전할 때
- ③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여 보고할 때
- ④ 상대가 꺼리는 내용이나 서운한 점을 말할 때
- ⑤ 자신의 주장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내세울 때

## 5-(1) 듣기·말하기 방법의 다양성

1.⑤ 2.⑤ 3.④ 4.① 5.③ 6.③ 7.⑤ 8.줄임말을 사용한  
다. 9.④ 10.④ 11.③ 12.① 13.④ 14.④ 15.⑤ 16.②  
17.③ 18.⑤

## 5-(2) 언어 예절을 갖추어 대화하기

1.⑤ 2.② 3.① 4.(1) 안녕하세요→좀 어떠십니까?/ 얼  
마나 고생이 되십니까? (2) 할아버지는 몸이 건강하  
지 못한 상황이므로 안부 인사는 예의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5.③ 6.④ 7.④ 8.⑤ 9.② 10.② 11.③ 12.①  
13.③ 14.④⑤ 15.④

## 5-(3) 상황에 따른 문법 요소의 활용

1.② 2.① 3.④ 4.② 5.② 6.④ 7.③ 8.② 9.④ 10.㉠의  
'-었-'은 말하는 시점에서 볼 때 과거의 사건이 현재  
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함. ㉡의 '-었-'은 말하는  
시점에서 볼 때 미래의 사건을 이미 정하여진 것처  
럼 표현함. 11.① 12.② 13.⑤ 14.⑤ 15.④ 16.② 17.  
① 18.② 19.⑤ 20.④ 21.③ 22.② 23.⑤ 24.보러가는  
데 → 보러가는데 / 할머니가 → 할머니께서 / 좋아  
할 것 → 좋아하실 것 / 3만원 이십니다 → 3만원입  
니다 25.①-시-, -었- ② -이 26. L-손님, 이 커피는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27.④ 28.④ 29.① 30.(1) 주체  
를 높이는 어미 '-시-'를 사용하여 '음료'를 높이고 있  
기 때문에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로 고쳐 써야  
한다. (2) 청자에게 '좋은 하루'가 되라는 것은 어색하  
므로, '좋은 하루 보내세요.'로 고쳐 써야 한다. 31.③  
32.② 33.첫 번째 문장은 단순히 여우가 어제 도서관  
에서 책을 먹었다는 사실만을 전달하지만 두 번째  
문장은 화자의 과거 회상을 통해 여우가 어제 도서  
관에서 책을 먹었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동시에 여우  
가 어제 도서관에서 책을 먹었다는 사실을 화자가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되었음을 드러낸다. 34.② 35.④  
36.'잊혀진다'는 '잊-+-히-+-어지-+-ㄴ-+-다'로 이중 피  
동이므로 '잊힌다'로 고쳐 써야 한다. '생각되어진다'  
는 '생각+-되-+-어지-+-ㄴ-+-다'로 '-되다'와 '-어지다'  
가 쓰인 이중 피동이며, 주어 '나'가 생각하는 것이므  
로, '생각한다'로 고쳐 써야 한다. 37.⑤ 38.① 39.②  
40.③ 41.④ 42.④ 43.① 44.③ 45.④ 46.① 47.② 48.  
② 49.② 50.④ 51.③ 52.② 53.㉠-영미는 자기가 곧  
출발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버지께 자기도 가야  
하냐고 물었다. 54.③ 55.⑤ 56.② 57.⑤ 58.④ 59.②  
60.⑤

## 6-(1) 매체를 통해 보는 세상

1.⑤ 2.④ 3.⑤ 4.⑤ 5.③ 6.㉠머드 광장에 인파가 물  
리는 장면이 있는 동영상 ㉡머드 체험시설 앞에서  
줄 서 있는 관광객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 ㉢먹을거  
리 종류가 많지 않아 불편하다고 말하는 관광객의  
인터뷰 동영상 7.⑤ 8.㉠2016년7월15일부터 24일까  
지 행사가 진행된다. ㉡대전 해수욕장 머드 광장 및  
시내 일원에서 열린다. ㉢19번째 열리는 행사이다. 9.  
③ 10.④ 11.외국인 관광객 수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12.③ 13.④ 14.④ 15.② 16.⑤  
17.⑤ 18.④ 19.② 20.(1) 보령 머드 축제를 홍보하여  
한국인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참여하기를  
기대함 (2) ㉠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은 보령 머드 축제가 우리 나라  
사람들과 세계인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라는 사실을  
알린다. 21.① 22.② 23.② 24.축제명을 영어로 표기  
하여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홍보 효과를 의도함. 25.  
④ 26.④ 27.③ 28.⑤ 29.② 30.(가) 정보의 신뢰성을  
높임. (나) 보령 머드 축제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축제임을 뒷받침함. (다)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홍보 효과를 의도함. 31.글쓴이의 관  
점이나 의도가 타당하고 적절한가? 내용이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가? 표현 방법이 관점이나 의  
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가? 32.③ 33.④ 34.⑤ 35.  
② 36.① 37.④ 38.③ 39.⑤ 40.㉠.표제 L. 값진, 투  
혼, 공 41.① 42.④ 43.③ 44.외국인 관광객 수에 대  
한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제시한다.

## 6-(2) 마지막 땅

1.① 2.③ 3.㉠는 정신적 가치를, ㉡는 현실적 가치를  
중시한다. 4.⑤ 5.③ 6.④ 7.② 8.① 9.⑤ 10.⑤ 11.④  
12.⑤ 13.③ 14.⑤ 15.① 16.① 17.송고미는 일상생활  
에서 벗어난 크고 위대한 것을 추구하는 데서 오는  
아름다움으로 높은 경지의 정신적 경지를 체험할 수  
있게 하는 미의식이다. 우아미는 일상생활에서 오는  
작고 친근한 것을 추구하는 데서 오는 아름다움으로  
고전적인 기품과 멋을 드러내는 미의식이다. 비장미  
는 숭고한 이념을 긍정하려는 투쟁에서 오는 아름다  
움으로 한의 표출로 형상화되는 미의식이며, 골계미  
는 구속을 거부하고 삶을 긍정하려는 각성에서 오는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미의식이다. 18.강 노인이 빛독  
촉을 받은 후 아내에게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고 부

동산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통해 강노인이 땅을 팔아 자식들의 빚을 갚아 줄 것임을 알 수 있다. 19.⑤ 20.③ 21.⑤ 22.집주인들, 강 노인의 밭이 동네의 격을 떨어뜨리고 집값 상승을 방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3.④ 24.② 25.③ 26.① 27.④ 28.⑤ 29.④ 30.④ 31.① 32.⑤ 33.③ 34. (1) 연탄재, 팔팔 올림픽, 도로 주변 미화 사업 (2) 씨, 것인가 35.① 36.④ 37.③ 38.강 노인이 땅을 팔기로 마음먹었다는 의미이다. 39.④ 40.③ 41.① 42.② 43.④ 44.② 45.② 46.② 47.⑤ 48.③ 49.④ 50.⑤ 51.① 52.삶의 터전이자 인간과 함께 생명을 나누는 공간이다.

### 6-(3) 책으로 세상 읽기

1.① 2.③ 3.저출산이 심각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국내 적정 인구의 규모를 오늘날에 맞게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 4.② 5.③ 6.④ 7.① 8.③ 9.③ 10.④ 11.② 12.② 13.④ 14.① 15.② 16.④ 17.⑤ 18.② 19.⑤ 20.② 21.방법2 국내 적정 인구의 규모를 오늘날에 맞게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 22.(A) 저출산의 심각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B)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이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출산율이 계속 떨어진다.

### 7-(1)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한다

1.③ 2.① 3.⑤ 4.② 5.④ 6.② 7.③ 8.① 9.찬성 1은 자기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신뢰할 만한 기관의 자료를 제시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식품 의약품 안전 평가원에서 2011년 배포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⑤ 11.③ 12.④ 13.⑤ 14.② 15.① 16.② 17.③ 18.① 19.⑤ 20.① 21.사회자는 토론의 배경과 토론 논제를 소개하고, 토론 순서를 지정하며 토론을 진행하고 있으며, 토론자의 발언 내용 정리하고 있다. 22.① 23.② 24.④ 25.④ 26.③ 27.② 28.'고당류 음료를 먹으면 모두 당뇨병이나 대사 증후군에 걸린다'라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29.토론을 구성하는 요소는 논제, 쟁점, 논증이다. 제시된 논제는 가치 논제이다. 30.⑤ 31.① 32.토론의 논제를 제시한다. 토론 순서를 지정하며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자의 발언 내용을 정리한다. 33.가공음료에 과도한 양의 당이 들어있어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는데 가격을 올리면 소비가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 7-(2) 내 생각에 귀 기울여 줄래요?

1.② 2.① 3.쓰기 맥락에는 글의 목적, 주제, 예상 독자, 매체가 있다. 4.(1) 자료3 (2)'자료3'은 심폐소생술 교육 동영상 철저히 관리해야한다는 내용의 동영상이므로 쓰기 맥락을 고려했을 때 글의 목적과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고, 동영상 매체이기 때문에 시각 자료로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5.② 6.③⑤ 7.⑤ 8.④ 9.④ 10.① 11.① 12.② 13.③ 14.(1) 하지만 질병 관리 본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스웨덴(55%), 미국(31%)이나, 일본(27%) 등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아직도 일반인이 실시한 심폐 소생술 비율이 12.1퍼센트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2) 글의 목적: 우리 지역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폐 소생술을 배우자고 설득한다. / 주제: 심폐 소생술을 배우자. / 예상 독자: 우리 지역 사람들(심폐 소생술에 대한 배경지식은 부족하지만, 건강과 안전에 관심이 많음.) / 매체: 인쇄 매체인 지역 신문 15.⑤

### 8-(1) 청산별곡

1.⑤ 2.⑤ 3.산은 '청산'과 비슷한 의미의 시어로 속세에서 벗어난 이상적 공간을 의미한다. 4.② 5.④ 6.⑤ 7.④ 8.② 9.③ 10.⑤ 11.③ 12.⑤ 13.③ 14.③ 15.각 연마다 반복되어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게 하여 구조적 통일성과 안정감을 준다. 16. ㉠는 갈던 발이랑을 의미한다. ㉡는 유랑민의 쟁기를 의미한다. 17.④ 18.② 19.⑤ 20.울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은 또 어찌 할 것인가 21.② 22.⑤ 23.아마도 24.① 25.④ 26.③ 27.② 28. (1) 3·3·2조 3음보를 지닌다. (2)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화자의 절박한 심정이 드러난다. (3) 초장-중장-종장의 3장 구성이다. 종장의 첫 음보로 시상을 집약하거나 전환하여 서정적인 완결성을 갖추게 한다. 29.④ 30.(1)고려 가요 (2)3·3·2조, 3음보의 율격을 지니고 있다. 분연체의 구성을 지닌다. 후렴구가 발달하였다. 31.③ 32.① 33.③ 34.③ 35.③ 36.① 37.④ 38.⑤ 39.③ 40.③ 41.① 42.② 43.(1) (가)-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나)-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 아리랑 고개고개로 나를 넘겨 주게 (2) 노래의 흥을 돋운다. 각 연마다 반복되어 구조적 통일성과 안정감을 준다. 44.② 45.④ 46.④ 47.⑤ 48.① 49.③

### 8-(2) 시조 세 편

1.④ 2.① 3.① 4.③ 5.10구체 향가가 시상 전개에 따라 '4구-4구-2구'의 3단으로 구성되듯이 시조도 '초장-중장-종장'의 3단으로 구성된다. 시상을 집약하거나 전환하여 서정적인 완결성을 갖추게 하는 향가의 낙구의 감탄사는 시조 중장 첫 음보로 계승되었다. 6.⑤ 7.㉠-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두꺼비(부패한 관리)의 모습 ㉡-대상을 희화화하여 풍자하고 있다. 8.③ 9.⑤ 10.③ 11.⑤ 12.① 13.① 14.② 15.③ 16.⑤ 17.(라)의 3단 구성은 (다)의 초장, 중장, 종장으로 나타나며 시상을 전환하는 (라)의 낙구 첫머리 감탄사는 (다)의 중장 첫 음보와 기능이 유사하다. 18.⑤ 19.④ 20.④ 21.① 22.① 23.⑤ 24.④ 25.③ 26.두꺼비-탐관오리(부패한 양반) / 백송골(중앙관리,외세) / 파리(힘없는 백성,피지배층) 27.④ 28.② 29.④ 30.② 31.③ 32.② 33.⑤ 34.④ 35.(1) 힘든 현실 속에서 신념을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2) 자연물에 빗대어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푸른색과 흰색의 색채 대비가 드러난다. 36.① 37.② 38.④ 39.③ 40.④ 41.③ 42.⑤ 43.③ 44.② 45.① 46.① 47.④ 48.② 49.눈 속에서도 푸름을 잃지 않는 대나무처럼 끝까지 고려 왕조에 절개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8-(3) 흥겨워진**

1.② 2.① 3.⑤ 4.⑤ 5.④ 6.⑤ 7.사씨는 유교적 가치를 중시하고 가부장적 가치관을 지닌 인물로 여성이 사회적 활동을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계월은 성별 구분 없이 능력에 따라 인정받는 것을 당연시하는 인물로 가부장적 가치관과 거리가 멀다. 8.① 9.① 10.③ 11.② 12.보국은 가정 내의 가부장적 권위를 내세워 평국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우위에 있는 그의 명령에 불만을 가졌었는데 평국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구했기 때문이다. 13.① 14.④ 15.④ 16.㉠-비정상적인 출생 과정을 거침 ㉡-장사랑의 반란으로 부모와 헤어지고 죽을 위기에 처함 ㉢-첩 영춘을 죽인 일로 남편이 보국과 갈등함 17.① 18.④ 19.(1) 비현실성 (2) 계월이 불길한 느낌이 들어 천기를 살펴보고 천자의 위험을 알게 된 것이다. 계월이 하룻밤 사이에 황성에 도착한 것이다. 20.③ 21.③ 22.① 23.② 24.영웅의 일대기 구성이다. 25.② 26.① 27.⑤ 28.② 29.④ 30.② 31.왜냐하면, 계월은 행동은 가부장적 가치관과 남존여비 의식 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32.④ 33.② 34.여공을 만나 목숨

을 구하고 양육된다. 35.② 36.③ 37.④ 38.가부장적인 가치관 39.② 40.⑤ 41.④ 42.⑤ 43.계월이 불길한 느낌이 들어 천기를 살펴보고 천자의 위험을 알게 된다는 것, 하룻밤 사이에 황성에 도착하는 부분을 볼 때 비현실성이 드러난다. 계월이 텅 빈 장안에서 만난 사람이 마친 시아버지인 여공이라는 부분을 볼 때 우연성이 드러난다. 44.① 45.② 46.③ 47.④ 48.② 49.㉠은 부부사이에도 서로 바른 길로 이끌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사씨'는 유교적 가치를 중시하고 가부장적인 가치관을 옹호하는 인물로 여성을 수동적인 존재로 인식하여 여성이 사회적 활동을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반면에 '계월'은 가부장적 가치관과 거리가 먼 인물로 성별의 구분 없이 능력에 따라 인정받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있다.

**9-(1) 국어의 어제와 오늘**

1.⑤ 2.④ 3.① 4.⑤ 5.㉠ ㉡, ㉢, ㉣, ㉤, ㉥, ㉦, ㉧, ㉨, ㉩, ㉪, ㉫, ㉬, ㉭, ㉮, ㉯, ㉺, ㉻, ㉼, ㉽, ㉾, ㉿, ㊀, ㊁, ㊂, ㊃, ㊄, ㊅, ㊆, ㊇, ㊈, 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ㅀ, ㅁ, ㅂ, ㅃ, ㅄ, ㅅ, ㅆ, ㅇ ㉠, ㉡, ㉢, ㉣, ㉤, ㉥, ㉦, ㉧, ㉨, ㉩, ㉪, ㉫, ㉬, ㉭, ㉮, ㉯, ㉺, ㉻, ㉼, ㉽, ㉾, ㉿, ㊀, ㊁, ㊂, ㊃, ㊄, ㊅, ㊆, ㊇, ㊈, 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ㅀ, ㅁ, ㅂ, ㅃ, ㅄ, ㅅ, ㅆ, ㅇ ㉠, ㉡, ㉢, ㉣, ㉤, ㉥, ㉦, ㉧, ㉨, ㉩, ㉪, ㉫, ㉬, ㉭, ㉮, ㉯, ㉺, ㉻, ㉼, ㉽, ㉾, ㉿, ㊀, ㊁, ㊂, ㊃, ㊄, ㊅, ㊆, ㊇, ㊈, 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ㅀ, ㅁ, ㅂ, ㅃ, ㅄ, ㅅ, ㅆ, ㅇ ㉠, ㉡, ㉢, ㉣, ㉤, ㉥, ㉦, ㉧, ㉨, ㉩, ㉪, ㉫, ㉬, ㉭, ㉮, ㉯, ㉺, ㉻, ㉼, ㉽, ㉾, ㉿, ㊀, ㊁, ㊂, ㊃, ㊄, ㊅, ㊆, ㊇, ㊈, 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ㅀ, ㅁ, ㅂ, ㅃ, ㅄ, ㅅ, ㅆ, ㅇ ㉠, ㉡, ㉢, ㉣, ㉤, ㉥, ㉦, ㉧, ㉨, ㉩, ㉪, ㉫, ㉬, ㉭, ㉮, ㉯, ㉺, ㉻, ㉼, ㉽, ㉾, ㉿, ㊀, ㊁, ㊂, ㊃, ㊄, ㊅, ㊆, ㊇, ㊈, 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ㅀ, ㅁ, ㅂ, ㅃ, ㅄ, ㅅ, ㅆ, ㅇ ㉠, ㉡, ㉢, ㉣, ㉤, ㉥, ㉦, ㉧, ㉨, ㉩, ㉪, ㉫, ㉬, ㉭, ㉮, ㉯, ㉺, ㉻, ㉼, ㉽, ㉾, ㉿, ㊀, ㊁, ㊂, ㊃, ㊄, ㊅, ㊆, ㊇, ㊈, 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ㅀ, ㅁ, ㅂ, ㅃ, ㅄ, ㅅ, ㅆ, ㅇ ㉠, ㉡, ㉢, ㉣, ㉤, ㉥, ㉦, ㉧, ㉨, ㉩, ㉪, ㉫, ㉬, ㉭, ㉮, ㉯, ㉺, ㉻, ㉼, ㉽, ㉾, ㉿, ㊀, ㊁, ㊂, ㊃, ㊄, ㊅, ㊆, ㊇, ㊈, 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ㅀ, ㅁ, ㅂ, ㅃ, ㅄ, ㅅ, ㅆ, ㅇ ㉠, ㉡, ㉢, ㉣, ㉤, ㉥, ㉦, ㉧, ㉨, ㉩, ㉪, ㉫, ㉬, ㉭, ㉮, ㉯, ㉺, ㉻, ㉼, ㉽, ㉾, ㉿, ㊀, ㊁, ㊂, ㊃, ㊄, ㊅, ㊆, ㊇, ㊈, 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ㅀ, ㅁ, ㅂ, ㅃ, ㅄ, ㅅ, ㅆ, ㅇ ㉠, ㉡, ㉢, ㉣, ㉤, ㉥, ㉦, ㉧, ㉨, ㉩, ㉪, ㉫, ㉬, ㉭, ㉮, ㉯, ㉺, ㉻, ㉼, ㉽, ㉾, ㉿, ㊀, ㊁, ㊂, ㊃, ㊄, ㊅, ㊆, ㊇, ㊈, 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ㅀ, ㅁ, ㅂ, ㅃ, ㅄ, ㅅ, ㅆ, ㅇ ㉠, ㉡, ㉢, ㉣, ㉤, ㉥, ㉦, ㉧, ㉨, ㉩, ㉪, ㉫, ㉬, ㉭, ㉮, ㉯, ㉺, ㉻, ㉼, ㉽, ㉾, ㉿, ㊀, ㊁, ㊂, ㊃, ㊄, ㊅, ㊆, ㊇, ㊈, 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ㅀ, ㅁ, ㅂ, ㅃ, ㅄ, ㅅ, ㅆ, ㅇ ㉠, ㉡, ㉢, ㉣, ㉤, ㉥, ㉦, ㉧, ㉨, ㉩, ㉪, ㉫, ㉬, ㉭, ㉮, ㉯, ㉺, ㉻, ㉼, ㉽, ㉾, ㉿, ㊀, ㊁, ㊂, ㊃, ㊄, ㊅, ㊆, ㊇, ㊈, 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ㅀ, ㅁ, ㅂ, ㅃ, ㅄ, ㅅ, ㅆ, ㅇ ㉠, ㉡, ㉢, ㉣, ㉤, ㉥, ㉦, ㉧, ㉨, ㉩, ㉪, ㉫, ㉬, ㉭, ㉮, ㉯, ㉺, ㉻, ㉼, ㉽, ㉾, ㉿, ㊀, ㊁, ㊂, ㊃, ㊄, ㊅, ㊆, ㊇, ㊈, 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ㅀ, ㅁ, ㅂ, ㅃ, ㅄ, ㅅ, ㅆ, ㅇ ㉠, ㉡, ㉢, ㉣, ㉤, ㉥, ㉦, ㉧, ㉨, ㉩, ㉪, ㉫, ㉬, ㉭, ㉮, ㉯, ㉺, ㉻, ㉼, ㉽, ㉾, ㉿, ㊀, ㊁, ㊂, ㊃, ㊄, ㊅, ㊆, ㊇, ㊈, 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ㅀ, ㅁ, ㅂ, ㅃ, ㅄ, ㅅ, ㅆ, ㅇ ㉠, ㉡, ㉢, ㉣, ㉤, ㉥, ㉦, ㉧, ㉨, ㉩, ㉪, ㉫, ㉬, ㉭, ㉮, ㉯, ㉺, ㉻, ㉼, ㉽, ㉾, ㉿, ㊀, ㊁, ㊂, ㊃, ㊄, ㊅, ㊆, ㊇, ㊈, 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ㅀ, ㅁ, ㅂ, ㅃ, ㅄ, ㅅ, ㅆ, ㅇ ㉠, ㉡, ㉢, ㉣, ㉤, ㉥, ㉦, ㉧, ㉨, ㉩, ㉪, ㉫, ㉬, ㉭, ㉮, ㉯, ㉺, ㉻, ㉼, ㉽, ㉾, ㉿, ㊀, ㊁, ㊂, ㊃, ㊄, ㊅, ㊆, ㊇, ㊈, 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ㅀ, ㅁ, ㅂ, ㅃ, ㅄ, ㅅ, ㅆ, ㅇ ㉠, ㉡, ㉢, ㉣, ㉤, ㉥, ㉦, ㉧, ㉨, ㉩, ㉪, ㉫, ㉬, ㉭, ㉮, ㉯, ㉺, ㉻, ㉼, ㉽, ㉾, ㉿, ㊀, ㊁, ㊂, ㊃, ㊄, ㊅, ㊆, ㊇, ㊈, 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ㅀ, ㅁ, ㅂ, ㅃ, ㅄ, ㅅ, ㅆ, ㅇ ㉠, ㉡, ㉢, ㉣, ㉤, ㉥, ㉦, ㉧, ㉨, ㉩, ㉪, ㉫, ㉬, ㉭, ㉮, ㉯, ㉺, ㉻, ㉼, ㉽, ㉾, ㉿, ㊀, ㊁, ㊂, ㊃, ㊄, ㊅, ㊆, ㊇, ㊈, 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ㅀ, ㅁ, ㅂ, ㅃ, ㅄ, ㅅ, ㅆ, ㅇ ㉠, ㉡, ㉢, ㉣, ㉤, ㉥, ㉦, ㉧, ㉨, ㉩, ㉪, ㉫, ㉬, ㉭, ㉮, ㉯, ㉺, ㉻, ㉼, ㉽, ㉾, ㉿, ㊀, ㊁, ㊂, ㊃, ㊄, ㊅, ㊆, ㊇, ㊈, 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ㅀ, ㅁ, ㅂ, ㅃ, ㅄ, ㅅ, ㅆ, ㅇ ㉠, ㉡, ㉢, ㉣, ㉤, ㉥, ㉦, ㉧, ㉨, ㉩, ㉪, ㉫, ㉬, ㉭, ㉮, ㉯, ㉺, ㉻, ㉼, ㉽, ㉾, ㉿, ㊀, ㊁, ㊂, ㊃, ㊄, ㊅, ㊆, ㊇, ㊈, 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ㅀ, ㅁ, ㅂ, ㅃ, ㅄ, ㅅ, ㅆ, ㅇ ㉠, ㉡, ㉢, ㉣, ㉤, ㉥, ㉦, ㉧, ㉨, ㉩, ㉪, ㉫, ㉬, ㉭, ㉮, ㉯, ㉺, ㉻, ㉼, ㉽, ㉾, ㉿, ㊀, ㊁, ㊂, ㊃, ㊄, ㊅, ㊆, ㊇, ㊈, 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ㅀ, ㅁ, ㅂ, ㅃ, ㅄ, ㅅ, ㅆ, ㅇ ㉠, ㉡, ㉢, ㉣, ㉤, ㉥, ㉦, ㉧, ㉨, ㉩, ㉪, ㉫, ㉬, ㉭, ㉮, ㉯, ㉺, ㉻, ㉼, ㉽, ㉾, ㉿, ㊀, ㊁, ㊂, ㊃, ㊄, ㊅, ㊆, ㊇, ㊈, 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ㅀ, ㅁ, ㅂ, ㅃ, ㅄ, ㅅ, ㅆ, ㅇ ㉠, ㉡, ㉢, ㉣, ㉤, ㉥, ㉦, ㉧, ㉨, ㉩, ㉪, ㉫, ㉬, ㉭, ㉮, ㉯, ㉺, ㉻, ㉼, ㉽, ㉾, ㉿, ㊀, ㊁, ㊂, ㊃, ㊄, ㊅, ㊆, ㊇, ㊈, 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ㅀ, ㅁ, ㅂ, ㅃ, ㅄ, ㅅ, ㅆ, ㅇ ㉠, ㉡, ㉢, ㉣, ㉤, ㉥, ㉦, ㉧, ㉨, ㉩, ㉪, ㉫, ㉬, ㉭, ㉮, ㉯, ㉺, ㉻, ㉼, ㉽, ㉾, ㉿, ㊀, ㊁, ㊂, ㊃, ㊄, ㊅, ㊆, ㊇, ㊈, 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ㅀ, ㅁ, ㅂ, ㅃ, ㅄ, ㅅ, ㅆ, ㅇ ㉠, ㉡, ㉢, ㉣, ㉤, ㉥, ㉦, ㉧, ㉨, ㉩, ㉪, ㉫, ㉬, ㉭, ㉮, ㉯, ㉺, ㉻, ㉼, ㉽, ㉾, ㉿, ㊀, ㊁, ㊂, ㊃, ㊄, ㊅, ㊆, ㊇, ㊈, ㊉, ㊊, ㊋, ㊌, ㊍, ㊎, ㊏, ㊐, ㊑, ㊒, ㊓, ㊔, ㊕, ㊖, ㊗, ㊘, ㊙, ㊚, ㊛, ㊜, ㊝,

서는 '이' 모음 뒤에서는 '가'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중세 국어 주격 조사는 자음 뒤에서는 '이', 'ㅣ'모음 이외의 모음 뒤에서는 'ㅣ'의 형태로 나타났다. 54.(1) 사람마다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 데 편하게 하고 자 할 따름이니라. (2) 뵈, 순경음 비읍 55.② 56.① 57.세로쓰기와 이어적기를 하였고, 띄어쓰기는 하지 않았으며, 방점을 찍는 표기상의 특징을 보인다. 이어적기의 예로 현대 국어에서 '뜻을', '놈이'로 끊어 적기하는데 자료에서는 '뜨들' '노미'로 표기하였다.

## 9-(2) 우리말의 담화 관습 다시 보기

1. (1) 마당에 있는 닭을 잡아 안주를 내오게 (2) 돌려 말하기에 해당된다. 돌려 말하기는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을 완곡하게 돌려 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자신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전달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신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못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2.㉗는 신중하게 말하기, ㉘는 경청하고 가려듣기와 관련이 있다. 3.(1) ㉙-접사, ㉚-파생, ㉛-어근, ㉜-어근, ㉝-합성 (2) '불고기'는 불(어근)+고기(어근)로 합성의 방법으로 만든 합성어이며, '소리꾼'은 '소리(어근)+꾼(접사)'로 파생의 방법으로 만든 파생어이다. 4.⑤ 5.④ 6.③ 7.④ 8.④ 9.ㄱ: 조선(나라) ㄴ: 나랏일 10.③ 11.④ 12.③ 13.③ 14.⑤

- 끝 -

### 5-(1) 듣기·말하기 방법의 다양성

- 1.⑤  
▶다른 지역의 사람의 경우 일기예보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받지 못할 수 있음.
- 2.⑤  
▶다른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끼리 만나면 이질감을 느낌.
- 3.④  
▶(가)도 같은 세대끼리의 언어나 말하기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사회 방언을 구사함.
- 5.③  
▶(가)의 상황을 직접 사과하는 것은 아님.
- 6.③  
▶(나)는 방언을 사용함.
- 7.⑤  
▶대화 상황과 상대가 속한 집단을 동시에 고려해야함.
- 9.④  
▶㉠는 격식체를 사용함.
- 10.④  
③ (바)의 '애비가네예'는 지역 방언이며, <보기>의 '갑툭튀'는 사회 방언임.
- 11.③  
① (가)의 화자는 작가의 대리인임.  
② (나)는 실제의 세계를 바탕으로 함.  
⑤ (가)는 주관적 태도를 유지함.

- 12.①  
▶자연물(진달래꽃)을 이용해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응, 헛갈리지 마!◀**

**사물 vs 자연물**  
 \*사물: 물질 세계에 있는 모든 구체적이며 개별적인 존재를 통틀어 이르는 말.  
 \*자연물: 자연계에 있는, 저절로 생긴 물체.  
 ('자연물'은 '사물'의 일부에 해당함)

**▶어머, 이걸 외워야 해!◀**

**반어법 vs 역설법 (★★★)**  
 ㄱ.반어: 겉표현과 속마음이 반대.  
 (지각한 학생에게 "참 빨리도 왔다"라고 비꼼)  
 ㄴ.역설: 겉표현은 모순되지만 깊은 속 뜻 나타냄.  
 (님은 갔지만님을 보내지 않았다)

- 13.④  
① '어울리니'는 '어우르+아+니'이므로 피동 접사 '-리-'는 없음.  
② 간접 인용으로 바꿀 경우 <경수는 나에게 그 옷이 잘 어울리는지 물어봤다>가 되므로 인칭 대명사는 '그'로 달라짐.  
③ 간접 인용으로 바꿀 경우 문장 종결 어미는 의문문이 아님.  
⑤ 간접 인용으로 조사 '라고'는 사라짐.

- 16.②  
▶지역의 특성이 드러나는 향토적 표현임.

### 5-(2) 언어 예절을 갖추어 대화하기

- 2.②  
ㄴ: 구체적인 이유를 말하는 것이 상대에게 좋음  
ㄹ: 거절 의사는 직접 말하는 것이 좋음
- 5.③  
▶'친구 덕분에' 혹은 '실수가 너무 잦더구나'와 같이 비방이 최소화되지 않음.

- 6.④  
① ㉠: 상대방의 부담을 떨어뜨림.  
② ㉡: 상대의 부담을 높임.  
③ ㉢: 자신의 비방과는 상관없음.  
⑤ ㉤: 자신의 부담을 높임.

- 7.④  
▶상대에게 동의를 구하는 건 아님.

- 11.③  
① 비격식체인 해요체를 사용했다.  
⑤ 생략된 문장의 주어는 서준임.

- 12.①  
② 요령의 격률  
③ 칭찬의 격률  
④ 겸양의 격률  
⑤ 동의를 격률

- 13.③  
▶여학생도 경어체를 사용함.

- 14.④⑤  
① 안녕하지 않는 문병 상황에서 '안녕하세요!'는 적절치 못함.  
② 윗사람에게 '수고'라는 어휘는 정중하지 않음.  
③ 윗사람에게 명령체인 '~하세요'는 정중하지 않음.

15.④

- ① 요령의 격률을 어김
- ② 요령의 격률을 어김
- ③ 칭찬의 격률을 어김
- ⑤ 동의의 격률을 어김

**5-(3) 상황에 따른 문법 요소의 활용**

1.②

③ ‘만든’의 ‘-ㄴ’은 과거시제를 나타냄. ④ 피동접미사에는 ‘-이-, -히-, -리-, -기-’가 있음. ⑤ ‘배송이 끝난 날 짜로부터 열흘이 지나면 환불되지 않습니다.’는 이중피동이 아님.

2.①

② 경쟁률→경쟁률 ③ 믿겨지지→믿기지 혹은 믿어지지 ④ 잊혀진→잊어진 혹은 잊힌 ⑤ 하겠다라고→하겠다고

3.④

▶피동 표현으로 내용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음.

**▶어머, 이걸 외워야 해!◀**

**능동 vs 주동 vs 피동 vs 사동 (★★★)**

- ㄱ. 능동적=주동적=스스로 움직임!
- ㄴ. 피동: 주체가 일을 당함 (문이 닫힌다)
- ㄷ. 사동: 주체가 일을 시킴 (철수가 문을 닫게 한다.)

이중피동은 무조건 불가하지만 이중사동은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 1) 그는 그녀를 울렸다.(○)  
→사동표현: [ 울+리(사동)+었+다 ]
- 2) 그는 그녀를 울게 하였다.(○)  
→사동표현: [ 울+게 하(사동)+었+다 ]
- 3) 그는 그녀를 울리게 하였다.(X) →불필요한 이중사동
- 4) 그는 그녀를 재우다.(○)  
→이중사동 허용: [ 자+이(사동)+우(사동)+다 ]
- 5) 그는 그녀가 아이에게 밥을 먹이게 하다.  
→이중사동 허용: [ 먹+이(사동)+게 하(사동)+다 ]

3)이 불필요한 이중사동인 이유는 1)과 2)와 같이 사동표현 하나만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4.②

▶‘~잘 익어 가겠다’(진행상)

5.②

▶‘치아’만 ㉠에 해당하고 ㉡은 없음.

6.④

▶‘-었-’은 과거가 아닌, 미래의 사건이나 일을 이미 정해진 사실처럼 나타냄.

7.③

▶㉠ : ‘-ㄴ’은 사건시가 발화시에 앞선다는 것을 나타냄.

8.②

▶‘비치는’이 맞은 표현이고 ‘비칩지는’는 불필요한 피동표현임.

9.④

▶㉡의 ‘보였다’는 사동사이고 ㉢의 ‘보였다’는 피동사임.

11.①

- ② 비격식체에 해당 ③ 하십시오체에 해당 ④ 해체에 해당 ⑤ 해요체에 해당

**▶어머, 이걸 외워야 해!◀**

**상대(청자) 높임법 (★★)**

- ㄱ.이 책을 읽으십시오. (격식체 / 하십시오체: 아주 높임 표현)
- ㄴ.이 책을 읽으시오. (격식체 / 하오체: 보통 높임 표현)
- ㄷ.이 책을 읽게. (격식체 / 하게체: 보통 낮춤 표현)
- ㄹ.이 책을 읽어라. (격식체 / 해라체: 아주 낮춤 표현)
- ㅁ.이 책을 읽어요. (비격식체 / 해요체: 두루 높임 표현)
- ㅂ.이 책을 읽어. (비격식체 / 해체: 두루 낮춤 표현)

12.②

▶‘드신다’만 주체 높임이고 나머지는 모두 객체 높임임.

**▶어머, 이걸 외워야 해!◀**

**높임법의 종류(★★)**

- 1)주체 높임법: 서술어에 호응하는 주어 높임.  
‘선생님께서 가시다’
- 2)상대 높임법: 청자를 높임.  
‘학생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책을 읽어요’
- 3)객체 높임법: 부사어 혹은 목적어를 높임.  
‘내가 할머니께 돈을 드렸다’

한 문장 안에서 2개 이상의 높임법이 사용될 수 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어제 만나신 할머니께 제가 돈을 드렸어요.’

(화자: 나, 주체: 아버지, 청자: 어머니, 객체: 할머니)

(주체 높임: 만나신, 청자 높임: ~요, 객체 높임: 드렸~)

13.⑤

▶‘읽은’만 과거이고 나머지는 모두 현재임.

14.⑤

▶㉡: 과거, ㉢: 미래, ㉣: 현재

- ① ‘지금, 이제’는 현재시제에서 사용함. ② ㉢과 ㉣은 사건이 일어난 시점과 화자가 말하는 시점이 동일한 시제임. ③ ㉣은 미래시제일 뿐, ‘가능성’의 의미는 없음. ④ ㉣에는 현재시제 선어말어미 ‘-ㄴ’이 사용된 현재 시제임.

15.④

▶‘잊혀진’=‘잊+히(피동)+어 지(피동)’으로 이중 피동 표

현에 해당

- ① ‘-지다’는 용언 뒤에 붙음. ② 주어가 당한 경우에 사용. ③ ‘끼어들기’(×)→‘끼어들기’ ⑤ 동사의 어간에 ‘-이-, -히-, -리-, -기-’의 4종의 접사를 붙여 표현한다.

16.②

▶‘환불+되(피동)+지’와 같이 피동 표현은 책임을 회피하는 특성을 있음.

- ① 피동은 한 번 있을 뿐, 이중 피동은 아님. ③ ‘모여지다, 쓰여지다, 믿겨지다’ 은 이중 피동임. ④ 체언에 ‘-되’를 붙여서 만들어진 표현임. ⑤ “다음에 들를 장소는 광화문이 되겠습니다.”에는 피동이 없음.

17.①

▶저도 가냐고(×)→자신도 가냐고

18.②

ㄱ. ~께서(주체 높임) ㄴ. ~께서(주체 높임) 마치셨습니다(청자높임) ㄷ. 모시고(객체 높임)

19.⑤

▶지난 번 그 일에 대해서는 선생님께서(주체 높임) 부모님께(객체 높임) 여쭙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상대 높임)

- ① 어제는 아버지를 모시고(객체 높임) 병원에 진찰을 받으러 갔었다.  
 ② 선생님, 주말에 정희와 함께 잠깐 뵈러(객체 높임) 가도 괜찮을까요?(상대 높임)  
 ③ 할아버지께서(주체 높임) 길에 쓰러져 계신(주체 높임) 모습을 보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  
 ④ 저는 딱 하루만 친구들과 아무 걱정 없이 신나게 노는 것이 소원이예요.(상대 높임)

20.④

▶(라)는 미래의 사건을 이미 정해진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과거형일 뿐임.

21.③

▶‘타고 있네’는 진행상과 완료상의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됨.

22.②

▶능동문이 피동문에 비해 주관적인 느낌으로 사실을 전달함.

23.⑤

▶아버지께서(주체 높임) 할머니를 모시고(객체 높임) 가셨습니다.

- ② 진아가 할머니를 뵈러(객체 높임) 갔다.  
 ③ 할아버지께서(주체 높임) 책을 읽으신다.  
 ④ 이 박사님께서(주체 높임) 어제 도착하셨습니다.

27.④

㉠ ‘모시다’는 객체 높임말임. ㉡ ‘해요체’는 비격식체, ‘해

라체’는 격식체임.

28.④

①, ② 문장의 객체는 ‘선생님’임. ③, ⑤ 객체를 높으려면 ‘선생님에게’를 ‘선생님께’로 수정해야함.

29.①

- ② 장인이 사위에게(해라체) : “어서 와라.”  
 ③ 엄마가 딸에게(하계체) : “자네, 어서 오게.”  
 ④ 어르신이 젊은이에게(하오체) : “어서 오시오.”  
 ⑤ 박 부장이 김 과장에게(하십시오체) : “김 과장, 어서 오십시오.”

31.③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에서 ‘-겠-’은 의지를 나타냄.

37.⑤

- ① 간접 인용 표현은 인용절 다음에 조사 ‘고’를 사용한다.  
 ② 직접 인용 표현은 조사 ‘라고’를 사용한다. ③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 상대 높임 표현과 인칭 대명사가 달라진다. ④ 간접 인용 표현을 매끄럽고 간결한 느낌을, 직접 인용 표현은 생생한 느낌을 준다.

38.①

▶이런 사태를 당하여(㉠)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겠는가?

39.②

▶아버지께서는(주체 높임) 할머니를 뵈러(객체 높임) 큰 댁에 가셨습니다.(상대 높임)

- ① 내일 시간이 되면 우리 같이 밥 먹어요.(상대 높임)  
 ③ 회수가 아버지를 모시고(객체 높임) 춘천여행을 떠났습니다.(상대 높임)  
 ④ 사장님께서(주체 높임) 직원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고민이 있으시다.(주체 높임)  
 ⑤ 수업이 끝나자 승희는 담임 선생님께(객체 높임) 출석부를 갖다 드렸다.(객체 높임)

40.③

▶의문문일 때 종결어미는 ‘-까’로 명령문일 때 종결어미는 ‘-라’로 바뀐.

41.④

▶㉠의 ‘막히는’: 현재시제, ㉡의 ‘받은’: 과거시제를 나타냄.

42.④

▶아버지는 객체가 아닌, 주체임.

43.①

② 잠시 후면 대통령 내외분이 식장으로 입장하시겠습니다.

→㉠

- ③ 동생은 낚시하러 가겠다고 한다.→㉠
- ④ 그런 것은 삼척동자도 알겠다.→㉠
- ⑤ 별사람을 다 보겠다.→㉠

44.③

▶‘-이다’는 선어말어미가 아닌, 서술격조사임.

▶어머, 이걸 외워야 해!◀

시제 선어말 어미의 종류 (★★)

- ㄱ.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ㄴ- / -는-  
‘철수가 밥을 먹는다.’
- ㄴ.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 / -았-  
‘철수가 밥을 먹었다.’
- ㄷ.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 -겠-  
‘밥을 다 먹고 숙제를 하겠다.’
- ㄹ.회상 시제 선어말 어미: -더-  
‘철수가 밥을 먹고 있더라.’

45.④

▶‘생각되어진다’(×)→생각한다, ‘쓰여질’(×)→쓰일, ‘믿겨지지’(×)→믿어지지, ‘모여진’(×)→모인

46.①

▶㉠은 사건이나 행위가 이미 완료된 것만을 나타냄.

47.②

▶인칭 대명사 ‘네가’는 ‘내가’로 바뀐다.

48.②

- ㉠생각된다(×)→생각한다    ㉡모여진=모+이(피동)+어 지(피동)
- ㉢들려지는=들+리(피동)+어 지(피동)

49.②

- ① 풀겠다: 가능성    ③ 없겠다: 추측    ④ 오겠지: 추측
- ⑤ 되겠구나: 추측

50.④

① 화자와 청자의 관계보다는 담화 상황(분식집 / 학급회의)에 따라 상대 높임 표현이 달라짐. ②,③ (가)와 (나)의 수현은 모두 격식체의 표현을 씀. ⑤ (가)에서 수현은 격식체 중 ‘해라체’를 (나)에서 영호는 비격식체 중 ‘해요체’를 쓰고 있다.

51.③

▶‘그는 조금 전에 먹었고 나는 지금 막 먹었다.’→㉠에 해당

52. ②

- ① ㉠은 말하는 시점과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이 일치함.
- ③ ㉡에도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작년에)가 있음.
- ④ ㉢의 ‘차는’에서 ‘-는’은 현재를 나타냄.
- ⑤ 과거: 우리 반이었다. / 현재: 우리 반이다. / 미래: 우리

반일 것이다.

54.③

- ㄹ. 있으시겠습니까(주체높임)    ㄱ. 할아버지께서는(주체높임)
- ㄴ. 한창이오(상대높임)    ㄷ. 되셨나요?(상대높임)
- ㄱ. 드렸다(객체높임)    ㄴ. 여쭙어(객체높임)

55.⑤

- ① 상품이십니다.(×)→상품입니다.(○)    ② 오시래.(×)→오라셔.(○)
- ③ 밝아요.(×)→밝으세요.(○)    ④ 계시겠습니까?(×)→있으시겠습니까?(○)

57.⑤

▶‘하겠습니다.’만이 의지를 나타내며 나머지는 추측을 나타냄.

58.④

▶피동문의 부사어는 필수 성분으로 생략 불가.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에서 경찰에게는 생략할 수 없음.

59.③

- ① 불리우는데요(×)→불리는데요(○)
- ② 밝혀지게 되었다(×)→밝혀졌다(○)
- ④ 쓰일 것이다(×)→쓸 것이다(○)
- ⑤ 생각되어진다(×)→생각된다(○)

60.⑤

▶‘수호는 내(→자기)가 먼저 간다라고 말했다.’

6-(1) 매체를 통해 보는 세상

2.④

▶(나)에 역사 자료를 활용은 없음.

▶어머, 이걸 외워야 해!◀

다양한 평가 기준의 척도 (★)

- ㄱ.타당성: 사물의 이치에 맞는 옳은 성질
- ㄴ.합리성: 이론이나 이치에 합당한 성질(상식적)
- ㄷ.객관성: 언제 누가 보아도 그러하다고 인정되는 성질
- ㄹ.공정성: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올바른 성질
- ㅁ.정확성: 바르고 확실한 성질
- ㅂ.신뢰성: 굳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성질

정확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공정하게 의견을 제시하면 의견의 타당성이 높아져 ‘합리적이다’ 라고 할 수 있고 그의 의견에 신뢰가 간다.

4.⑤

▶참고사항에 대한 해설은 없음.